

삼성 KPMG

# Samjong INSIGHT

Vol. 77·2021

삼성KPMG 경제연구원

## 금융과 ESG의 공존 : 지속가능한 금융회사의 경영 전략

Thought Leadership I

금융회사의 경영 화두, ESG

Thought Leadership II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동향과  
선진 금융회사의 ESG 경영 행보

Thought Leadership III

국내 금융업의 ESG 트렌드  
전환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장  
전략 방향



## 금융과 ESG의 공존 : 지속가능한 금융회사의 경영 전략

### Executive Summary

Thought Leadership I <b>금융회사의 경영 화두, ESG</b>	ESG와 지속가능금융 ..... 02 지속가능금융의 조성자이자 실천자, 금융회사 ..... 04 금융회사가 추구해야 할 ESG 가치 ..... 05
Thought Leadership II <b>글로벌 지속가능금융 동향과 선진 금융회사의 ESG 경영 행보</b>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 동향 및 특징 ..... 06 금융업을 둘러싼 글로벌 ESG 환경 변화 ..... 08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ESG 경영 비전과 활동 ..... 18
Thought Leadership III <b>국내 금융업의 ESG 트렌드 전환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장 전략 방향</b>	국내 지속가능금융 시장 동향 및 특징 ..... 39 국내 금융업 내 빠르게 변화하는 ESG 트렌드 ..... 41 국내 금융회사의 ESG 경영 활동 행보와 평가 ..... 45 국내 금융회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 방향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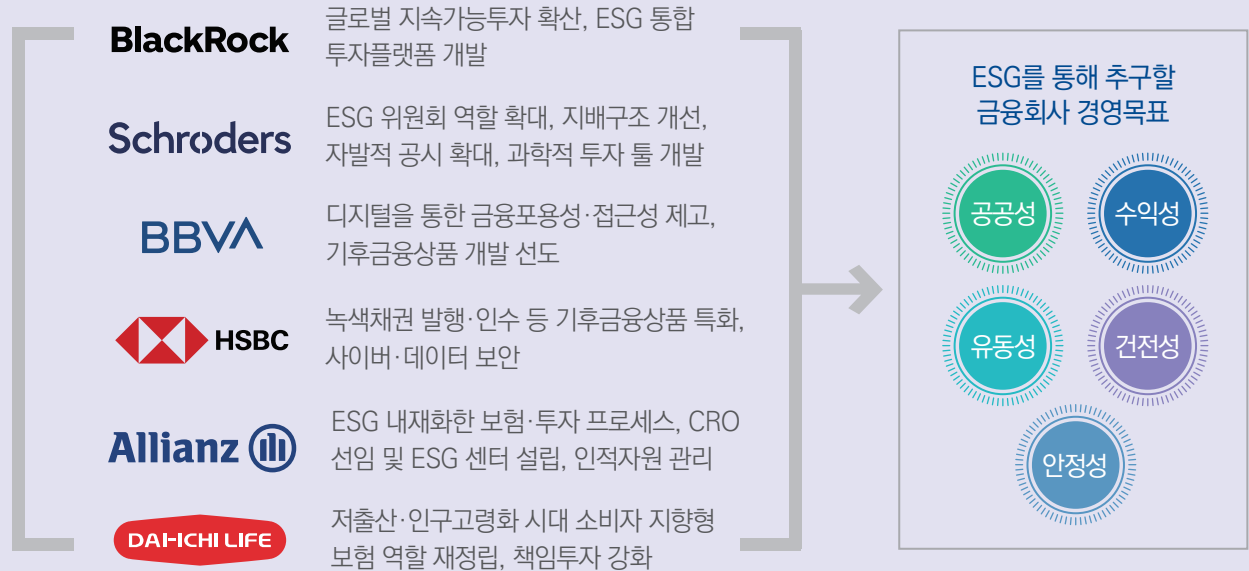
### Contact us

김규림 이사	gyulimkim@kr.kpmg.com	02-2112-4089
장지혜 책임연구원	jihyejang@kr.kpmg.com	02-2112-7438
곽호경 수석연구원	hokyungkwak@kr.kpmg.com	02-2112-7962
최연경 선임연구원	yeonkyungchoi@kr.kpmg.com	02-2112-7769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Executive Summary

## ■ 금융회사, ESG 내재화한 전사적 비즈니스 전략으로 지속가능금융의 조성자이자 실천자 지향



## ■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의 ESG 경영 전략



# Thought Leadership I

## 금융회사의 경영 화두, ESG



### ESG와 지속가능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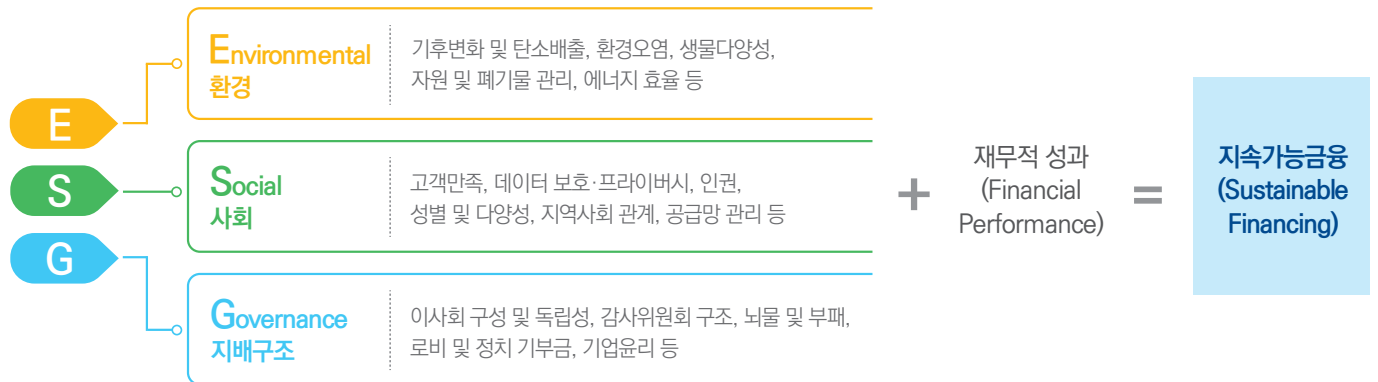
“ 지속가능금융, 재무적 성과와 ESG 등 비재무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경제 주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금융활동 ”

### 지속가능금융, 재무적 성과와 ESG 성과를 추구하는 금융활동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한다. 최근 ESG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나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차원을 넘어 ESG가 기업과 사회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내 기업 등 경제 주체가 ESG 요소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경제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융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활동은 본질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속가능금융은 ESG 등 비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재무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업 및 각 경제 주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sup>

### » 지속가능금융과 ESG 관계



ESG는 기업 장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Sustainability Capacity)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1)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ing)에 대해 통일된 정의는 없다. G20의 지속가능성스터디그룹(Green Finance Study Group, GFSG)은 기업과 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기여하는 금융서비스·상품, 관련 제도와 시장체제를 지속가능금융으로 정의한다. 또한 EU 위원회는 '지속가능 경제 활동과 프로젝트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투자결정 시 ESG를 고려하는 과정'을 지속가능금융으로 통칭한다.

지속가능금융은 과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과 관련하여 논의된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나 기후금융(Climate Finance)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환경적 요소(E)뿐만 아니라 사회(S), 지배구조(G) 등을 아울러 금융활동에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또한 임팩트 금융(Impact Financing)이나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와 같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후생 증진에 초점을 두는 금융활동도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금융의 포괄적 개념을 반영하여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은 지속가능투자 전략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스크리닝(Screening) 방식으로는 ①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②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Best-in-class Screening), ③ 규범 기반 스크리닝(Norms-based Screening)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특정 ESG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 미달인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기준을 넘는 우수한 기업을 골라 투자 대상에 편입하거나 또는 인권이나 노동 등에 대한 국제 권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④ ESG 통합(ESG Integration)은 재무적 성과와 함께 비재무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투자 방식으로서 ⑤ 지속가능테마투자(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는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농업 등 ESG로 인해 손해가 예상되는 사업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⑥ 임팩트 투자(Impact/Community Investing)는 재무적 성과와 함께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력(Impact)을 추구하는 투자로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⑦ 주주권을 활용한 기업관여(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는 주주로서 피투자대상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경영진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투자자별 ESG 우선순위 및 재무적 성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투자 대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지속가능투자 전략 유형

유형	투자 방식
네거티브 스크리닝 (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 특정 ESG 조건을 기준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사업이나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
포지티브 스크리닝 (Positive/Best-in-class Screening)	· ESG 성과가 우수한 사업이나 기업을 선정
규범 기반 스크리닝 (Norms-based Screening)	· 인권, 노동, 반부패 등 국제규범이나 표준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사업이나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
ESG 통합(ESG Integration)	· 재무적 성과와 ESG 등 비재무적 성과를 체계적·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대상 선정
지속가능테마투자 (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특정 테마나 자산에 투자
임팩트 투자 (Impact/Community Investing)	·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사회 개선이나 사회·환경적 목적을 지닌 사업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기업관여 (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	· 주주로서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진 대화,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관여하여 기업가치 제고

## 지속가능금융의 조성자이자 실천자, 금융회사

“ 금융업 내에서도 ESG 경영이 글로벌 화두로 부상하며, 각국 정책당국과 이해관계자의 관심 증대 ”

“ 금융회사,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이해관계자로 자금중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참가자 ”

### 지속가능금융을 이끄는 금융회사의 역할 중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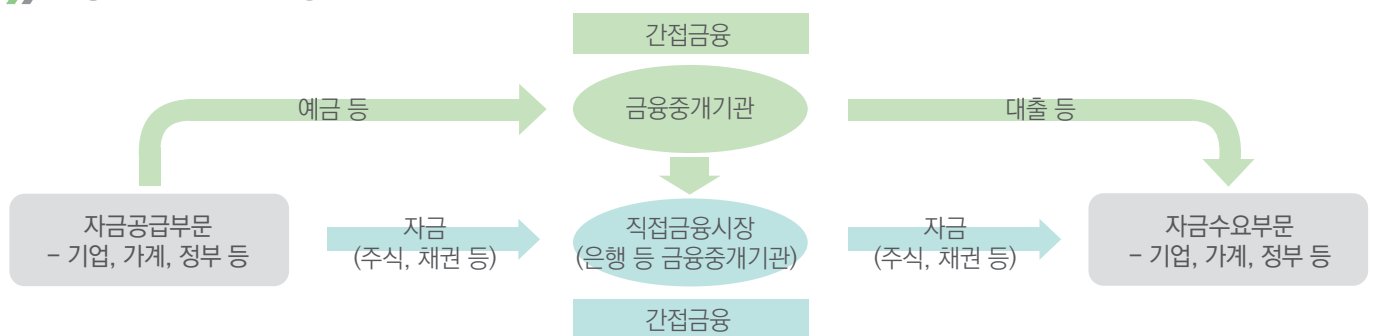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유수의 국내외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업들도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ESG ETF 등을 출시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녹색채권에 이어 사회적채권 등을 발행하여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의 재원 마련과 금융지원 등을 모색 중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회사에 타 산업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EU 등은 금융회사의 ESG 공시를 더욱 강화하며 타 산업보다 금융업의 ESG 경영 강화를 요구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국에서 스튜어디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회사 역시 이를 준수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의 ESG 경영을 강조하고, 금융회사 역시 ESG 경영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금융회사가 일반 제조업과 같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인 동시에,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가 내 자금순환의 중개자로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본질적으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 자금중개자로 역할하며, 자금중개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분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실물 부문에 자금이 공급·순환되기 위해서는 이를 중개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례로 금융회사가 재무적 수익만을 고려하여 투자 대상을 선정하면, 술이나 담배와 같은 유해산업에 자금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세대에 유해한 영향을 끼쳐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해당 산업에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수많은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제 전체와 연결된다. 이에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방침과 경영성과 등이 금융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경제 주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장기 지속가능성 역시 추구해야 한다. 일례로 예금자보호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방만한 경영이나 리스크 관리 실패로 파산하는 경우, 이는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지속가능금융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조성자이자 실천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금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 » 금융회사의 역할 및 기능



금융회사,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자원 배분·리스크 분산·유동성 제공 등 핵심적 역할 수행

## 금융회사가 추구해야 할 ESG 가치



“ 금융회사, 경영원칙  
(공공성, 수익성, 유동성,  
건전성, 안정성)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ESG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수적 ”

### 금융회사의 경영원칙 달성을 위해 추구해야 할 ESG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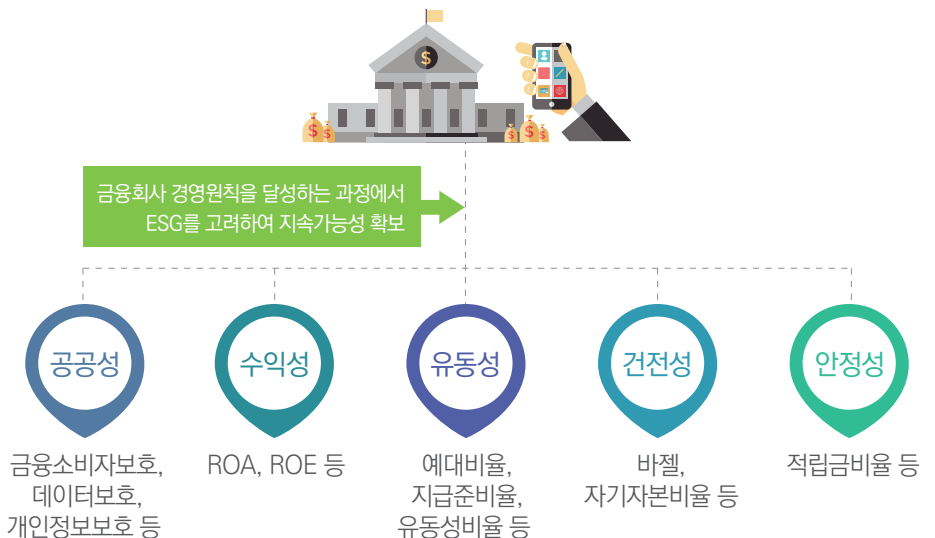
금융회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영리기업으로서 수익성과 유동성, 건전성,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영원칙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즉, 금융회사는 ESG를 고려하여 상기 요소를 균형 있게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금융 중개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금융회사가 추구해야 할 ESG 경영의 목적이다.

금융회사는 공공성 또는 공익성 추구 관점에서 금융시장 참가자 간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자금중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를 보정한다. 한편 시장실패 발생 시 자금공급자를 대리해서 금융회사가 자금수요자를 심사하며 모니터링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친환경 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포용성의 향상,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윤리 경영과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 등 사회·환경적 역할 역시 금융회사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 또는 공익성에 포함된다.

수익성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비대면 채널의 부상, 다양한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장 등 영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수익구조 다각화, 시장 저변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인출에 대비하여 적절한 유동성(Liquidity)을 확보하고, 자기자본 충실화 원칙에 따라 지급능력이나 청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건전성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리스크와 수익의 조합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시장·신용 리스크 등을 적절히 유지하며 자산 부실화를 방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자기자본비율 등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산운용이나 자본조달 방식을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환경 등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유동성이나 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높다. 또한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도 연계된다.

즉, 금융회사가 추구하는 ESG 경영은 전사적 경영방침과 철학 아래 금융회사 밸류체인 전반에 ESG를 고려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금융회사가 추구해야 하는 경영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

### » 금융회사의 경영원칙과 ESG 경영





Thought Leadership II

#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동향과 선진 금융회사의 ESG 경영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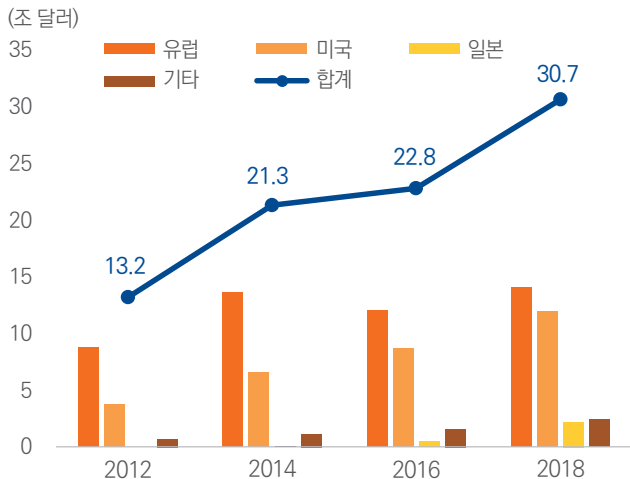
##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 동향 및 특징

###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며 성장 중

금융산업의 지속가능금융 또는 ESG 투자 규모를 통해 금융회사의 ESG 전략 내재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시장 규모와 전략 등을 집계하는 GSIA에 따르면 지속가능투자는 2018년 말 기준 30.7조 달러로 2012년 13.2조 달러 대비 2.3배 이상 성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기준 지속가능투자 규모를 약 40.5조 달러로 추정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기후문제 대두,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최근 들어 지속가능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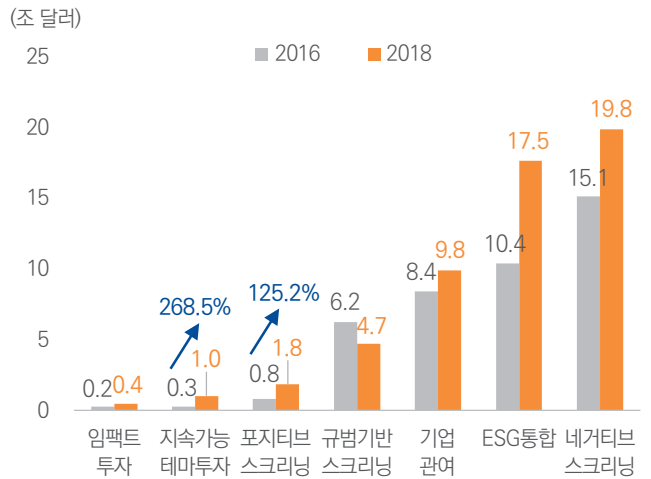
2018년 기준 지속가능투자의 지역적 비중을 보면 유럽(46%), 미국(39%), 일본(7%), 캐나다(6%), 호주·뉴질랜드(2%) 순이다. 지속가능투자를 지향하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유럽이 ESG 투자 시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2018년 지역별 투자 규모를 2016년과 비교 시 유럽(16.9%) 대비 일본(359.9%)과 미국(37.5%)이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인다. 이는 일본 연기금이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스튜어디십 코드 등을 도입하면서 금융회사와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ESG 투자를 실행하고, 미국은 금융회사 중심의 자발적인 ESG 투자가 확대된 결과이다.

### 》》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시장 규모



Source: GSIA

### 》》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전략 현황



Source: GSIA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2.18), 별첨3: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 최근 미국의  
민간금융회사와 일본  
연기금 확대로  
지속가능금융 크게 성장,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민간 중심  
ESG채권 발행도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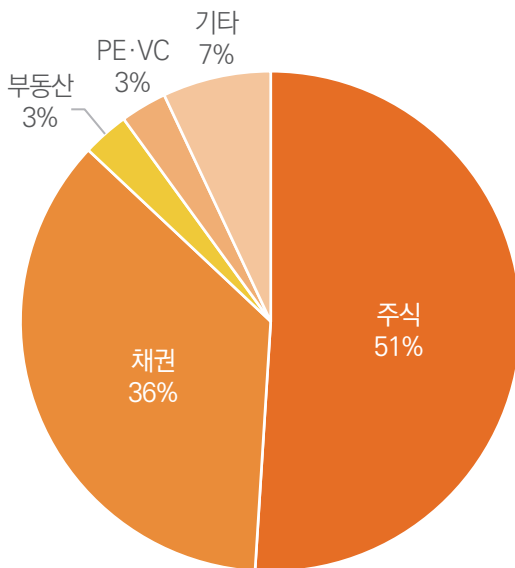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의 투자 전략별 운용 규모를 살펴보면, 글로벌 기관투자자는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ESG 통합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2018년 네거티브 스크리닝과 ESG 통합 규모는 각각 19.8조 달러(35.8%), 17.5조 달러(31.8%)로 전체 대비 67.6%에 달한다. 또한 상대적인 투자 규모는 적지만, 2016년 대비 지속가능테마투자자과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의 투자 규모 증가율은 각각 268.5%, 125.2%로 전체 투자규모 증가율(33.4%)을 크게 상회한다. 지속가능테마를 발굴·설정하거나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투자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것은 ESG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투자 기준을 적용하고 투자 방식이 고도화됨을 시사한다.

한편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의 자산배분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주식(51%), 채권(36%), 부동산(3%), PE·VC(3%) 순으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만 자산배분 내역을 보고한 2016년에는 주식과 채권 비중은 각각 64%, 33%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일본, 미국 등의 기관투자자도 자산배분 내역을 공개하고, 부동산이나 PE·VC 부문에서도 ESG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ESG채권 발행 규모도 증가세이다. 2020년 ESG채권 발행과 대출 규모는 전년대비 36.9% 증가한 7,898억 달러이다. 이 중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채권 발행 급증으로 2020년 글로벌 ESG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대비 64.3% 증가한 5,5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녹색대출과 지속가능연계대출인 ESG 대출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2,386억 달러 수준이다. 녹색채권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3,155억 달러가 발행되어 가장 높은 비중(39.9%)을 차지한다.

글로벌 ESG채권 발행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기존 정부 주도로 녹색채권이 발행되던 기조가 최근 민간 중심으로 사회적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활성화된 것에 기인한다.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안전 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금융회사가 ESG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채권은 2020년 1,551억 달러가 발행되어 전년대비 766.5%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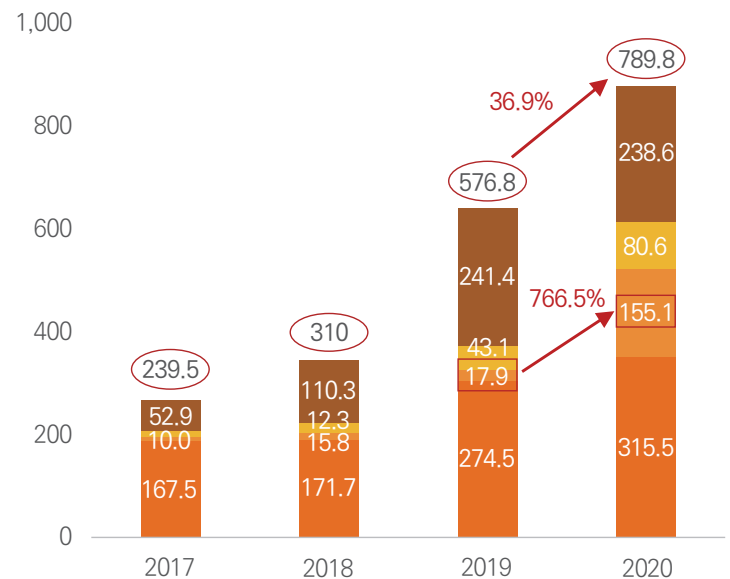
### ▶▶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투자자산배분(2018년)



Source: GSIA

### ▶▶ 글로벌 ESG채권 발행 및 대출 규모

(십억 달러) ■ 녹색채권 ■ 사회적채권 ■ 지속가능채권 ■ ESG대출



Source: Bloomberg

Note1: 녹색채권에는 녹색대출, 녹색지방채, 녹색ABS채권 포함

Note2: 지속가능채권에는 지속가능대출과 지속가능연계채권 포함

## 금융업을 둘러싼 글로벌 ESG 환경 변화

### 금융회사들의 ESG 경영을 위한 공시 기준 강화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sup>3)</sup>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기준이 글로벌 공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GRI는 지속가능보고서 작성과 공시 표준 제정을 목표로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2000년 전 기업군에 대해 최초로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GRI는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성과 세 축의 공시(Triple Bottom line Report)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GRI Standards를 발표하였고, GRI Standards는 모둠식 구성으로 영리·비영리 기업 등 모든 조직이 경제·환경·사회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지속가능경영거래소(Sustainable Stock Exchanges, SSE)가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 61개 증권거래소의 ESG 공시 지침을 조사한 결과, 95%의 증권거래소가 GRI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ESG 공시 지침을 가지고 있어 가장 범용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SASB는 11개 산업에 대해 77개 세부 산업별로 구분하여, 재무적으로 영향이 높은 중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일례로 환경 주제는 광물업, 식음료업, 기간산업 등에서는 중요한 주제인 반면, 금융업에서는 중요성이 낮다. 사회자본의 경우, 광물업에서는 중요성이 낮은 주제이나 식음료업, 헬스케어 산업에는 재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주제에 해당된다.

### ESG 관련 주요 글로벌 공시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발표시점	지표	특징	참여대상	참여국가·기업·기관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GRI Standards)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기준</li> <li>특정 주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제 6개, ② 환경 8개, ③ 사회 19개 지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듈 구조</li> <li>ESG 분야의 지표 구체화 및 보고 요구사항의 명확화</li> </ul>	전 기업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481개 조직이 GRI Standards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1.5월 기준)</li> </ul>
SASB Standards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개 산업군 총 77개 세부 산업별 ESG 정보공개 지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별 중요성 지도 (Materiality Map)를 통해 해당 산업군 중요 지표 제공</li> <li>산업 내 다른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 제고</li> </ul>	전 기업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58개 기업·기관이 SASB Standards를 활용하여 581개 연간 및 지속가능보고서 등 작성('20.20 기준)</li> </ul>
TCFD Recommendations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배구조, 경영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목표설정 4개 영역 내 11개 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지표 집중</li> </ul>	전 기업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8개국 2,160개 기관 및 정부·기업 가입</li> <li>국내 환경부, 한국 거래소, 신한·KB 등 46개 기관 가입('21.5월 기준)</li> </ul>
WEF-IBC SCM	20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배구조, 환경, 직원(종업원), 번영 등 4가지 핵심 축</li> <li>핵심지표 21개, 확장지표 34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주요 ESG 정보 보고 기준 중 공통적이면서 중요한 지표 발취</li> </ul>	전 기업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니레버, 네슬레, 소니 등 IBC 멤버 기업 중 60여개 글로벌 기업 활용 ('21.1월 기준)</li> </ul>

Source: 언론보도종합, 각 기관 홈페이지, 삼정KPMG 경제연구원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삼정인사이트 Vol.74. 참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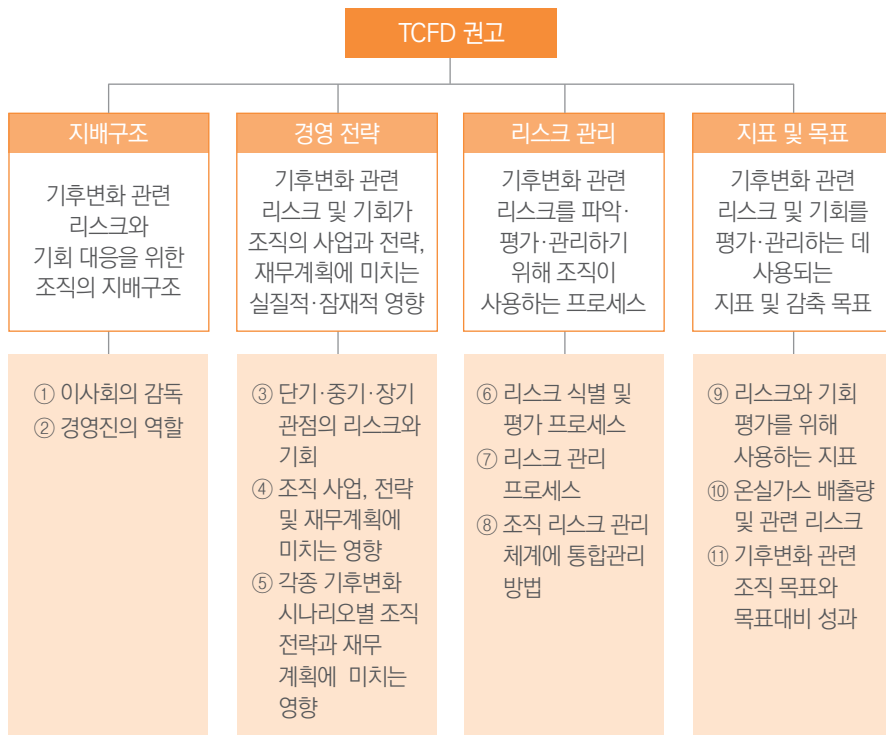
TCFD, 금융회사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  
등에 관한 지배구조,  
경영 전략 관련 정보의  
일관적 공시 권고 ”

2017년 발표된 TCFD<sup>4)</sup>의 권고안(Recommendations)은 기업 기업이나 조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지배구조', '경영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와 감축목표' 지침을 공개하도록 권장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금융정보 및 4가지 요소의 재무적 영향도를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최근 WEF-IBC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SCM)와 같이 비재무적 정보와 재무정보의 통합도 시도 중이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한 ESG 보고서를 공시하고, 주요 기업 등의 ESG 보고서를 활용하는 조직으로 다른 조직 대비 보다 높은 수준의 ESG 공시 규제를 적용받는다.

### (1) 금융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가입·활용 중인 ESG 공시 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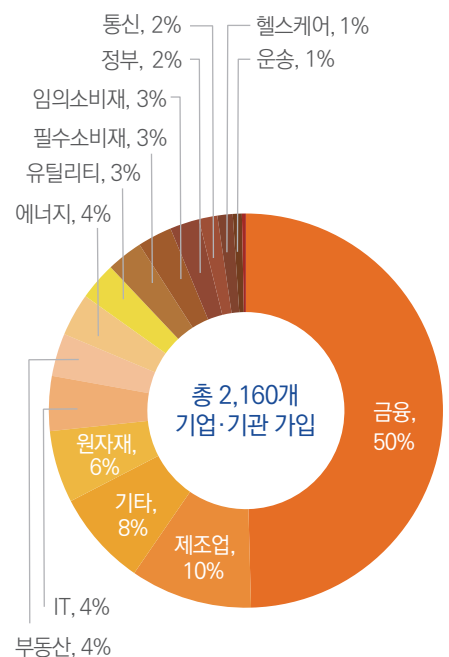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투자 대상의 지속가능성 수준이나 비재무적 리스크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는 TCFD 권고안이다. TCFD 권고안은 조직의 지배구조나 경영 전략을 포함하여 ESG 관련 리스크 관리 방법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일관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로 구분하며, 기후 리스크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투자 대상이나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 입장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여 올바른 경영 방향과 투자여사를 결정할 수 있기에 금융업을 중심으로 TCFD 참여와 활용이 가장 활발하다. 최근 제조업, 에너지 기업 등 비금융부문에서도 TCFD 가입이 증가세다. 2021년 5월 기준 총 2,160개 글로벌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TCFD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중 50% (1,071개)가 연금, 자산운용사, 은행, PE 등 금융업으로 구성된다.

### TCFD 권고안 기후변화 정보 공시 주요 공시 항목



Source: TCFD

### TCFD 가입 기관 업종별 현황



Source: TCFD

Note: 2021년 5월 기준

4) TCFD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위임을 받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기후관련 정보공개에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SASB, 금융업 재무적 성과에 중요한 ESG 요소로 상품 설계와 생애주기관리, 리스크 관리 등을 선정

2018년 발표된 SASB 기준은 ESG 이슈 중 지배구조, 사업모델, 환경, 사회자본, 인적자본 5개 주제에 대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재무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Materiality)' 이슈를 선정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SASB는 산업별 재무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를 중요성 지도(Materiality Map)로 간결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업 성과를 산업 내에서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빠르게 수용되고 있다.

SASB가 발표한 금융업 내 중요 ESG 이슈는 지배구조와 리더십, 사업모델과 혁신, 사회자본, 인적 자본이며, 상대적으로 환경 요소의 중요성은 낮다. 이는 금융업 내 폐기물 관리 등 물리적 실행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리스크 관리와 같은 조직 운영 프로세스상의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 이슈 중 상품 설계 및 생애주기관리, 비즈니스 윤리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 판매 관행 및 제품 라벨링이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ESG 요소로 꼽히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금융접근성과 경제성 역시 중요 요소이다. 이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지향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금융안정성 등을 도모해야 하는 금융업의 역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ASB는 금융업에서도 7가지 세부업종을 구분하여 중요 공시항목을 제시한다. ESG 이슈 중 판매 관행이나 제품 라벨링, 상품 설계와 생애주기관리, 시스템 리스크 관리는 대부분 업종에서 중요한 ESG 이슈이다. 업종별로 ① 일반 소비자 대상 상품 판매 등 고객 접점이 많은 은행과 소비자금융업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며, ② 보험이나 주택금융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이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 또한 ③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 중심의 산업인 점이 반영되어 직원의 참여와 다양성 확보 등이 중요 이슈로 꼽힌다.

» SASB의 지속가능성 중요성 지도: 금융업



Source: SASB

» SASB의 지속가능성 중요성 지도: 금융업 세부

	자산 운용사, 수탁사	은행	소비자 금융	보험	투자 은행, 증권사	주택 금융	증권 선물 거래소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금융접근성 및 경제성							
판매 관행 및 제품 라벨링							
직원 참여 및 다양성							
상품 설계 및 생애주기관리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							
비즈니스 윤리							
시스템 리스크 관리							

Source: SAS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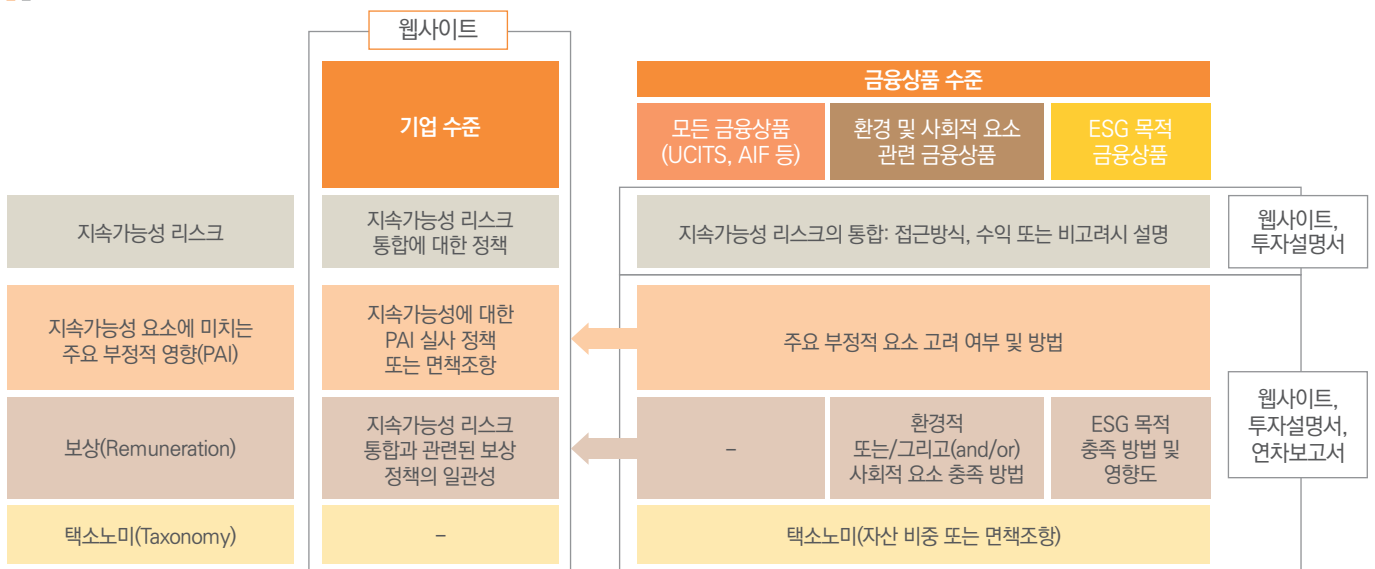
## (2) 금융회사, ESG 정보 공개 제도 본격 시행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정보는 자발적인 공시를 넘어 2006년 이후 대형 상장기업 등에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로, 특히 금융업은 전 산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는 산업이다. 2021년 3월 10일부터 EU 내 금융회사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 재무공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2018년 초에 발표된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회사들의 그린 워싱(Green Washing) 등을 예방하면서 민간자본의 친환경투자 및 지속가능투자 촉진, 투명성 제고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SFDR은 EU 역내 자산운용사, 보험, 은행 등이 기업 자체와 금융상품에 대해 ESG 등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어떻게 통합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된 주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방법 등을 웹사이트, 투자설명서,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한다. 시행 이후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고려 여부와 방법 등을 사전계약 문서상 공시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부터 500인 이상 고용한 금융시장 참가자 및 투자자문사 등은 기술적 세부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 등에 따라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PAI) 설명서 및 택소노미(Taxonomy)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RTS상 의무 공시 항목은 ①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근로자 사항, ② 투자 대상국가의 환경 및 사회적 요소, ③ 부동산 자산의 화석연료 및 에너지 효율 관련 항목 등 총 18개 항목에 달한다.<sup>5)</sup>

“ EU 금융회사 '지속가능금융 재무공개규정(SFDR)'에 따라 ESG 정보 공개 의무화 ”

### EU의 SFDR 주요 내용



Source: KPMG Switzerland(2021.3.12), The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is here.

Note: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는 집합투자기구, AIF(Alternative Investment Fund)는 대체투자펀드를 지칭

5)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오태현(2021),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계경제포커스, Vol.4 No. 27, KIEP, p.6. 참고

기업	① 온실가스, ② 탄소발자국, ③ 투자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④ 화석연료 분야 기업과 연관성, ⑤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 ⑥ 기후 분야 에너지 소비 집약도, ⑦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⑧ 폐수 방류, ⑨ 유해 폐기물 비율, ⑩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및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 ⑪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및 OECD 지침 준수 모니터링, ⑫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격차, ⑬ 이사회 내 성별 구성, ⑭ 논란이 되는 무기(대인지뢰, 화학무기 등)에 대한 노출 정도
국가	① 투자 대상국의 온실가스 집약도, ② 국제협약 및 국제법을 위반한 투자 대상국 비중
부동산자산	① 화석연료와 부동산자산의 연관성, ② 비효율 에너지 부동산자산과의 연관성

##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발전과 주요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확대

### (1)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논의 진화

“ UN PRI 등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 및 경영 전략 원칙을 제안하며 진화 중 ”

금융회사의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Finance Initiative, UNEP-FI)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금융회사와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명서(UNEP State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Insurance Industries on the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공표 등 글로벌 금융이니셔티브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UNEP-FI는 자산소유주(Asset Owner), 은행, 보험 등 업권 특성이 반영된 ESG 투자원칙을 발표하고, 글로벌 유수의 금융회사와 연기금의 참여를 독려하며, 금융회사 역시 투자 및 의사결정, 경영철학에 이를 반영 하려고 노력 중이다.

대표적 글로벌 투자 이니셔티브인 UN의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와 PE 등 금융회사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약속한다. 2021년 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3,613개 금융회사 및 연기금 등이 UN PRI에 가입하고, 이들의 총 운용자산 규모는 103.4조 달러에 달한다. 최근 UN PRI는 가입 기관 관리 자산의 50% 이상 PRI 정책 시행 및 이를 이행할 담당 직원과 감독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UN PRI의 투자 철학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의 탈락 등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UNEP-FI가 주도한 지속가능 보험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은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전략, 리스크 관리, 투자 의사결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ESG 정보 공개 등 보험사 경영 활동 전반에 ESG 이슈를 반영하도록 4개 원칙과 하위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2021년 5월 기준 110여 개 글로벌 주요 보험사 및 재보험사(전 세계 수입보험료의 25% 점유)가 PSI에 가입했다.

### » 지속가능금융 및 ESG 투자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제정연도	주요 원칙	특징	참여기업·기관
책임투자원칙 (PRI)	2006	<b>6대 원칙과 35개 세부 실천 프로그램</b> ①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 내 ESG 반영, ② 투자철학과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로 역할, ③ 투자 대상기업에 ESG 이슈 정보 공개 요구, ④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한 노력, ⑤ PRI 이행 효과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⑥ PRI 이행 관련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외부에 보고	전 세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자산 소유주(Asset Owner) 투자 의사결정에 ESG 요소 고려	· 3,613개 금융회사 및 연기금 등 가입 - 594개 자산운용사 가입 - 가입기관 AUM 103.4조 달러
지속가능 보험 원칙 (PSI)	2012	<b>4대 원칙</b> ① 보험사 사업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ESG 요소 고려, ② 사업파트너, 거래처 등과 ESG 리스크 관리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③ ESG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④ PSI 이행 과정을 투명하고 정기적으로 공시	보험산업의 밸류체인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및 인수, 클레임, 판매와 마케팅, 자산 운용 등) 전반 ESG 요소 접목	· 110여 개 이상 보험사·재보험사 채택 - 전 세계 수입보험료 25% 점유
책임은행원칙 (PRB)	2019	<b>6대 원칙</b> ① 사업전략을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파리기후협정 등과 연계, ② 금융상품·서비스의 부정적 영향 축소 및 긍정적 영향 확대, ③ 클라이언트 및 고객의 지속가능한 관행 장려, ④ 사회목표 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⑤ 효과적 지배구조 체계와 책임은행 문화, ⑥ 원칙이행 정기 평가 및 투명성 확보	은행권 대출 및 인수 활동에서 ESG 요소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개발 시도	· 글로벌 230여 개 은행

Source: UNEP-FI 홈페이지  
 Note: 참여 기관 수 등은 2021년 5월 기준



이는 2020년 6월 손해보험산업 내 ESG 리스크 관리와 인수에 관해 글로벌 최초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여, 손해보험산업 관련 주요 산업·상품별 ESG 리스크와 인수 리스크 등에 대한 히트맵(Heatmap)과 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PRB)은 은행업의 사업전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환경 측면의 긍정적 영향 확산 및 부정적 요소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5월 기준 Barclays Group, BBVA, Citi 등 유수의 글로벌 은행 및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NH농협은행, 신한금융 그룹 등 230여 개 은행(그룹)이 PRB에 서명했다. 서명 은행은 비즈니스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PRB 구현을 위한 ESG 목표를 설정하며, 서명 후 최대 18개월 이내에 PRB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자체평가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2020년부터 PRB 강화를 위해 탈락 요건 기준 등을 높였으며, UNEP-FI는 2021년부터 PRB 가입 은행의 보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명 은행은 서명 후 4년 이내에 ① 은행의 ESG 영향 분석, ② ESG 관련 목표 설정 및 이행, ③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PRB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발 중이다.

## (2) 글로벌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경영 내재화

이러한 국제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이니셔티브는 ESG 투자 등에 대해 국제적 관심과 공론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기관투자자인 연기금이 ESG 투자 또는 책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했다. 연기금은 공적 기금으로서 광범위한 가입자를 기반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여 그 혜택이 경제 내 다수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 수익률 제고를 통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수탁자 책임에 기반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기금의 책임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내 투자운용사 등이 ESG 요소를 어떻게 통합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자본시장 내 ESG 규범을 재형성하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6)</sup>

지속가능금융을 내재화하는 대표적 연기금인 노르웨이 GPF(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11조 3천억 크로네(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 국부펀드다. 2021년 5월 기준 글로벌 73개국을 대상으로 9,123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2004년 노르웨이 의회가 GPF를 위한 윤리투자지침을 채택한 이후 2013년 노르웨이 재무부가 GPF 전략위원회에 ESG 원칙에 입각한 책임투자 전략보고서 제출과 책임투자 강화를 요구하면서 GPF는 본격적으로 책임투자의 원칙과 전략 등을 체계화하였고,<sup>7)</sup> 2014년 GPF는 UN PRI에 서명했다. GPF는 투자 포트폴리오 내 ESG 요소를 고려하여 글로벌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지속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책임투자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UN과 OECD 등 글로벌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GPF가 추구하는 투자철학과 우선순위, 주주권 행사 원칙 등 투자원칙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간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원칙을 가진다.

“

노르웨이 GPF, 일본 GPIF 등 주요 연기금은 ESG 경영 철학을 내재화하며 자본시장의 지속가능금융 주도 ”

6) 임대웅·권동혁·김미선·정선영(2017), 주요국 공적연기금 책임투자 현황, 운영사례 및 시사점, 2017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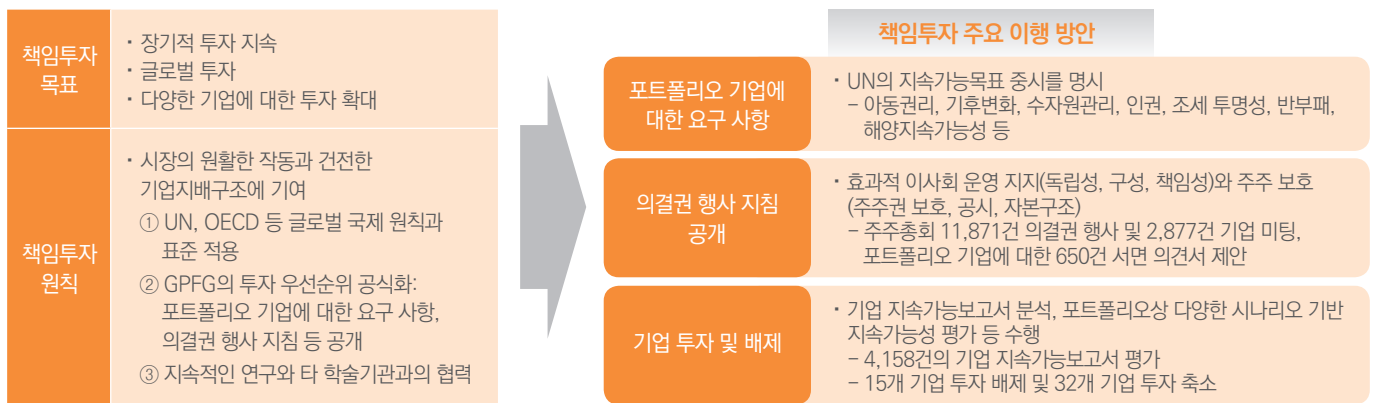
여은정(2019), 국내외 사회적 책임투자 사례 분석과 시사점, KIF Working Paper 2019-09, 한국금융연구원, p.1.

7) Anita M. Halvorsen & Cody D. Eldredge(2014), Investing in Sustainability: Ethics Guidelines and the Norwegian Sovereign Wealth Fund, 42 Denv. J. Int'l L. & Pol'y 389.



GPF가 책임투자를 실행하는 주요 메커니즘은 ①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② 스크리닝 방식 등을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다. GPF는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 기업과의 대화,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며, 특히 의결권 행사 지침을 공개하여 포트폴리오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사업 영위를 위한 이사회 운영과 주주 보호를 지향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GPF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다양한 기업들의 지속가능보고서 분석과 자사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 등으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평가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노르웨이 GPF의 책임투자 목표와 원칙



Source: GPF 홈페이지 및 GPF(2020), Responsible Investment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2020. 참고

일본 연기금인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PRI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글로벌 공적 연기금으로 꼽힌다. GPIF는 2018년 TCFD와 Climate Action 100+에도 지지를 선언하며 TCFD 권고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 및 포트폴리오 반영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GPIF는 장기 지속성을 추구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주식분만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 전 자산 투자 과정에 ESG 요소를 통합하고 있으며, ESG 지수 추종 패시브 투자(5.7조 엔)에 이어 4천억 엔 규모의 녹색채권에도 투자했다. 투자위원회는 ESG 관련 이니셔티브 및 투자 전략을 심의하고, ESG 통합이 전 투자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ESG 행정부서가 이를 주도한다. 또한 외부 자산운용사 선정과 평가에 있어서도 ESG 요소를 통합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전 자산에 적용하고, 외부 자산운용사 등에게도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업관여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 GPIF의 ESG 투자 현황(2019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용자산 151조 엔</li> <li>- 글로벌 5,111종 주식 및 13,919종 채권 보유</li> <li>투자 기간 100년</li> </ul>			
ESG 투자			
ESG 통합 전 자산 151조 엔	ESG 지수 추종 AUM 5.7조 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 0.4조 엔	PRI 등급 A+

Source: GPIF(2020), ESG REPORT 2019.

일본 GPIF의 ESG 투자 관련 부서 역할



Source: GPIF(2020), ESG REPOR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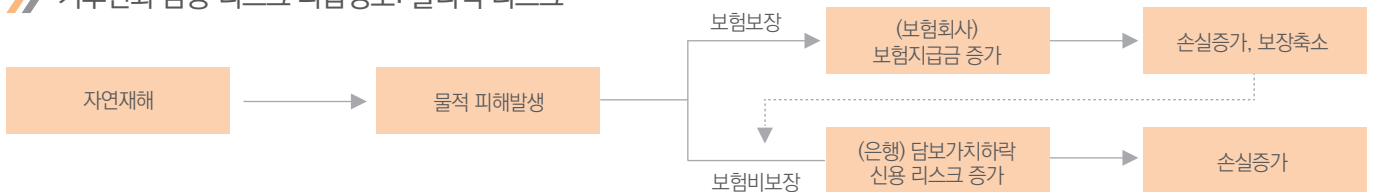
## 건전성 감독 체계상 ESG 요소 반영에 대한 논의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각 국가들은 최근 지속가능성·기후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리스크 관리 가이드 및 모범규준 등을 제정하며, 주요 국제 금융기구들은 기후 리스크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과정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건전성 감독 체계 내에서 ESG 리스크를 논의하게 된 출발점은 '기후체계가 자연적 변동 수준을 벗어나 평균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① 기후변화 자체로 인해 금융회사의 물적 손실이 증가하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②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인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를 야기하여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첫째, 물리적 리스크 관점에서 기업의 자연재해 피해 가능성 증가는 관련 보험 등을 인수한 보험사의 보험지급금 증가와 손실을 야기하고, 해당 기업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은행 등이 손실에 처할 가능성을 유발한다. 둘째, 정부의 저탄소 전환이나 저탄소 기술 발전은 탄소기반 사업모델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탄소산업 등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투자한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에 당면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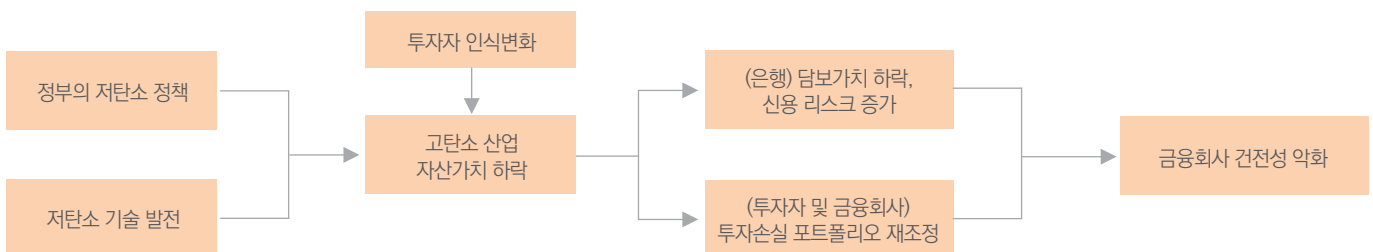
“ 기후 리스크가 물리적· 전환 리스크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과 건전성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 제기 ”

이러한 환경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재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은행 건전성 규제 바젤 Pillar 1(최소자본 요건)에서 “(부동산의 유해물질과 같은) 담보와 관련한 환경책임 리스크에 대해서 반드시 적절히 모니터링해야 한다(510항)”고 명시하여 담보 평가 시 환경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한다. 반면 Pillar 2(환경 리스크의 체계적 평가)와 Pillar 3(표준 공시)에는 이를 명시화하지 않아 UNEP-FI와 영란은행 등은 건전성 규제 체계 내 기후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2017년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 주도로 설립한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는 2019년 NGFS 녹색금융 촉진 6개 어젠다를 통해 기후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금융감독, 투자 포트폴리오, 정보 공시 체계에 반영할 것으로 권고한 데 이어 2020년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sup>8)</sup>

### 기후변화 금융 리스크 파급경로: 물리적 리스크



### 기후변화 금융 리스크 파급경로: 전환 리스크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2.18), 별첨3: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8) 2020년 권고안에서는 ① 감독기관이 기후환경 리스크가 자국경제 및 금융섹터에 전이되는 경로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파악, ② 기후환경 리스크 적정 대응을 위한 명확한 전략과 내부 조직 마련 및 적정 자원의 배분, ③ 금융회사의 기후환경 리스크 노출도와 예상 피해 분석 등에 대한 방안 마련 등 제언. 주요 내용은 임대웅(2020.5), 한-EU 2050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웨비나, pp.25~27. 참고

이러한 논의 확대에 EU의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Pillar 2에서 은행 내부자본적정성평가 절차(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내 기후·환경 리스크 반영을 골자로 하는 「기후·환경 리스크에 대한 가이드(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for Banks)」 최종안을 2020년 11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 대형은행은 자체 이행계획을 2021년 초 마련하고, ECB는 2022년 은행 업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기후관련 리스크에 초점을 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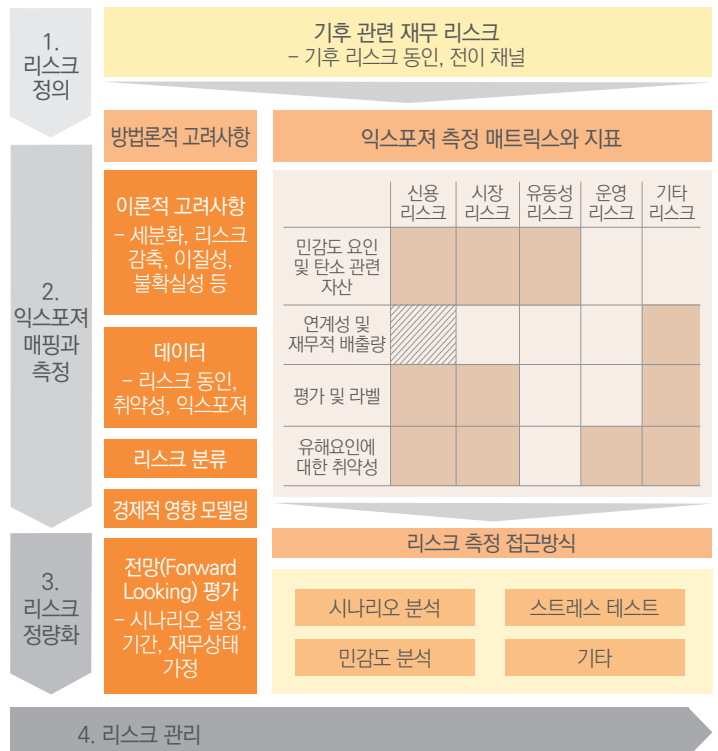
“ 최근 EU와 바젤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후리스크를 건전성 규제체계 내 반영하는 논의 본격화 ”

한편 2020년 1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와 금융위기를 ‘그린 스완(Green Swan)’으로 규정한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기후 리스크에 따른 리스크 평가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기후 리스크를 금융감독에 포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21년 4월 발간한 ‘Climate-related risk drivers and their transmission channels’에서는 물리적 및 전환 리스크 동인이 미시 및 거시 경제 채널을 통해 은행과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시했다. 또한 시장 및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기후 리스크가 과소평가됨을 지적하며 신용·시장 리스크 외 유동성·운영·평판 리스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measurement methodologies’에서는 전 세계적 일관된 기후 리스크 감독 가이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① 측정 측면에서 리스크 분류 재정의와 공시 격차 해소를 위한 데이터 보완, ② 방법론 측면에서 기존 감독 요건과 리스크 측정 도구의 전면적 수정을 제안한다. 보고서의 제안 내용은 향후 NGFS, FSB를 비롯하여 BIS가 기후 리스크 감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등 건전성 감독 체계 개편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 리스크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리스크	기후 리스크에 따른 잠재적 영향
신용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리스크는 소득효과(차입자의 상환능력과 부채 상환능력) 또는 자산효과(채무불이행 발생 시 대출 회수능력)를 낮추면서 신용 리스크 증가</li> </ul>
시장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리스크가 자산가격에 미포함 시, 대규모의 갑작스러운 가격 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금융자산 가치 감소 가능</li> <li>자산 간 상관관계가 붕괴되거나 특정 자산에 대한 시장 유동성 변화로 리스크 관리 가정 손상 가능</li> </ul>
유동성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상황 변화로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 감소 가능</li> <li>기후 리스크는 은행 거래상대방의 예금 및 신용한도 하향 조정에 영향</li> </ul>
운영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에 민감한 투자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적 및 규정 준수 리스크 증가</li> </ul>
평판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또는 소비자 심리 변화에 따라 은행에 대한 평판 리스크 증가</li> </ul>

》 은행 및 감독당국을 위한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



Source: BIS(2021.4), Climate-related risk drivers and their transmission channels.

Source: BIS(2021.4),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measurement methodologies.

9) ECB(2020.11), 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Supervisory expectations relating to risk management and disclosure.

“

지속가능경제활동의  
판단기준인 'EU 택소노미'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제  
활동과 금융회사의 투자  
결정 기준으로 활용 전망

”

## ESG 투자를 위한 실질적 기준 마련

유럽에서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확대를 목적으로 2018년 3월 '지속가능 금융 액션플랜' 중 첫 번째 주요 적용 분야로서 EU 택소노미(Taxonomy)를 수립했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을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 등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 6대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이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sup>10)</sup> 방지와 민간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판단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2020년 7월 EU 택소노미 규정이 발효되고, 2022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EU 기업은 해당 2개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관련 자본적 지출(CAPEX), 판관비 등 운영비용(OPEX) 등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공시해야 한다. EU 금융회사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목표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공급 비중 등을 공시해야 한다. EU 택소노미 시행을 앞두고 2020년 3~8월 한국 KB국민은행 및 EU 역내 25개 은행이 시범 운영을 거친 결과, 은행들은 그린 워싱 방지, 은행의 평판 증가,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개발과 잠재적 수요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의 분류와 판별 기준 적용의 어려움, 평가 절차의 복잡성, 신뢰성 가진 데이터 확보 부족 등의 한계점을 제시했다.<sup>11)</sup>

EU 택소노미는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분류체계뿐만 아니라 국제적 투자 기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가 EU 택소노미에 따른 공시 자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 택소노미의 기술선별기준 등은 지속가능금융의 실질적 표준을 제공하여, 지속가능 금융상품의 개발 또는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구체적 투자 표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 EU 택소노미(Taxonomy) 규정 체계

6대 환경 목표	①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판단 조건 (4대 요건)	1)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2)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3)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4)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

Source: KDB산업은행(2020.08.18), EU 분류체계 현황과 시사점,  
Weekly KDB Report, p.1.

### » EU 택소노미(Taxonomy) 녹색금융활동 분류체계

산업유형	주요내용
농림수산업	복원, 기존 삼림관리, 가축생산, 다년생 작물재배 등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해양에너지,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발전 등
건물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기존 건물 수리, 새건물 건축 등
제조업	저탄소기술 제품, 원료플라스틱, 비료와 질소화합물 등
상하수도·폐기물	대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포집, 무독성 폐기물 분리수거·운송 등
수송	저탄소 교통인프라, 수상시설 건축 등
정보통신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기반 솔루션 등
측정방법	산업 유형마다 6개 목표(기후변화 완화, 적응, 물, 순환자원, 오염, 생태계)와의 연계성 정의, 세부 측정방법 명시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8.13),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10) 그린 워싱(Green Washing)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

11) UNEP-FI(2021.01), Testing the application of the EU Taxonomy to core banking products: High level recommendations.

##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ESG 경영 비전과 활동

### ESG를 선도하는 금융기업들은 어떻게 ESG를 내재화하고 있는가?

본 장에서는 자산운용업, 은행 및 보험업 등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ESG 경영철학과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기업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의 평가 등급과 최근 등급 상향 정도, 각종 ESG 금융 Award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산업별 총 6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글로벌 금융회사가 ESG 각 부문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이지만, SASB 등에서 금융업 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선정한 리스크 관리 등 지배구조와 리더십, 금융상품 설계와 연관된 사업모델과 혁신, 금융접근성과 데이터 보안 등의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회사에게도 ESG 이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가 ESG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의 ESG 경영 활동 및 특징

구분	기업명	주요 ESG 경영 활동과 특징
자산 운용사	<b>BlackRock</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 투자, 장기적으로 더 높은 위험조정 수익률을 위한 투자 방식으로 인식</li> <li>TCFD와 SASB 지지 및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독려</li> <li>투자 플랫폼 알라딘(Aladdin)에 ESG 요소 통합 및 강화 정밀조사모델 구축 중</li> <li>다양한 ESG ETF와 펀드 상품 출시 추진, 주식 및 채권펀드 등에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확대</li> <li>스튜어드십(BIS) 팀 운영 및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li> </ul>
	<b>Schroder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 집행위원회-ESG운영위원회-기업책임위원회' 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팀·데이터팀과 협업</li> <li>투자 톨 impactIQ(SustainEx, Carbon VaR, Physical Risk 탑재 등) 개발</li> <li>지속가능성 목표 포함한 임원의 보수정책 마련</li> <li>Tier별 역량 차등화하며 다양한 기업관여 수행, ESG 투자 상세 내역 공개</li> </ul>
은행	<b>BBV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대응과 금융포용성을 위해 지속가능 목표와 '디지털과 기술' 연계</li> <li>2025년 목표치의 50%(501.6억 유로) 이행, 녹색(구조화)채권·프로젝트금융·대출 등 기업·소매금융 상품 개발</li> <li>Easy Banking &amp; Financial Inclusion Unit과 BBVA 오픈탈런트(Open Talent) 등을 통한 소비자 중심 금융서비스 개발</li> <li>2007년 BBVA 미소금융재단 설립 및 사업 지속 수행</li> </ul>
	 <b>HSB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 지속가능금융 목표의 93%(930억 달러) 달성</li> <li>선제적 녹색채권 &amp; 대출 위원회(GB &amp; LC) 설치 및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개발 등</li> <li>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위한 3단계 전략 방안 추진</li> </ul>
보험사	<b>Allianz</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년 ESG 이사회 설립 및 재무·리스크·투자 위원회 등과 연계 강화</li> <li>2021년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 선임 및 글로벌 지속가능성 그룹 센터 신설</li> <li>ESG 민감사업 가이드라인 기반 ESG 리퍼널 프로세스(Referral Process) 등 정립</li> <li>임직원 교육을 위한 Property &amp; Casualty and Life &amp; Health Academy, Allianz University 등 운영</li> </ul>
	 <b>DAI-ICHI LIF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와 저출산 등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반영한 보험사의 역할 재정립</li> <li>건강·장수 리스크 인수 및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자산형성 지원 연금 및 저축형 보험상품 개발</li> <li>책임투자위원회 및 책임투자 센터 신설</li> <li>ESG 리서치 기능 강화와 ESG 통합을 위한 세부 프로세스 마련</li> </ul>

“ 블랙록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위험조정수익률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지속가능금융’ 투자철학을 전 세계에 확산 ”

##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의 ESG를 이끄는 블랙록과 슈로더

### (1) 인덱스 펀드를 주도하며 지속가능투자를 확산하는 블랙록(BlackRock)

블랙록은 1988년 블랙스톤 그룹 내 펀드 형태로 설립된 이후 2006년 메릴린치 자산운용부문, 2009년 아이셰어즈(iShares)를 포함한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Barclay's Global Investors, BCI) 인수 등 적극적인 M&A를 통해 인덱스 펀드를 주도하는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로 성장했다.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2020년 말 기준 8.7조 달러로 이 중 25.9%(2.2조 달러)는 액티브 투자인 반면 66.1%(5.7조 달러)는 iShare ETF(Exchange Traded Fund) 및 인덱스 투자로 운용 중이며 모두 장기투자를 지향한다.

무엇보다 블랙록은 2020년 초 CEO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의 공개서신을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 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블랙록의 투자철학과 ESG에 대한 접근방식을 밝혀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과 지속가능금융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블랙록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위기임을 강조하고, 석탄발전을 통해 매출이 25% 이상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등 투자 결정 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블랙록이 인덱스 펀드로 성장하고 동시에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더 높은 위험조정수익률을 달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재정 안정성을 돕기' 위한 투자 철학을 반영한다.

블랙록은 지속가능금융과 넷제로(Net-Zero) 달성을 주도하는 투자자로서 ① 기업 공시 개선 권고, ② ESG 요소를 통합한 투자 프로세스 구축, ③ 지속가능 금융상품 개발 및 상품 정보 공시 확대, ④ 적극적 의결권 행사 확대를 주도한다. 우선 블랙록은 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TCFD와 SASB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블랙록은 ESG 정보 공시가 불충분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 반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기업이 보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 ▶▶ 블랙록 운용자산 및 실적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FY2015	FY2020
총운용자산	4,645.4	8,676.7
수익	11.4	16.2
영업이익	4.7	6.3
영업이익률	42.9	44.9

Source: BlackRock, Annual Report, 각 연도.



### ▶▶ 블랙록 투자자별·상품별 운용자산 내역(FY2020 기준)

(단위: 십억 달러)

	개인투자자	iShares ETFs	기관투자자	계
액티브	726	-	1,524	2,251
Non-ETF 인덱스	119	-	2,949	3,068
iShares ETFs	-	2,669	-	2,669
Cash Management	12	-	655	666
Advisory	-	-	22	22
합 계	858	2,669	5,150	8,677

장기 투자 지향

	개인투자자	iShares ETFs	기관투자자	계
액티브	8.4%	-	17.6%	25.9%
Non-ETF 인덱스	1.4%	-	34.0%	35.4%
iShares ETFs	-	30.8%	-	30.8%
Cash Management	0.1%	-	7.5%	7.7%
Advisory	-	-	0.3%	0.3%
합 계	9.9%	30.8%	59.4%	100.0%

Source: BlackRock(2021), Annual Report 2020.



“블랙록은 기업공시의 중요성과 ESG 통합 투자프로세스를 과학적·일관적 방식으로 내재화, ESG ETF 상품 다변화와 지속가능성 정보 확대 추진”

둘째, 블랙록은 ESG 요소를 내재화한 투자 프로세스를 과학적이며 전사적으로 구축해서 일관된 투자 방식을 지속할 방침이다. 블랙록은 2012년 자체 개발한 리스크 관리 및 거래·투자플랫폼인 알라딘(Asset Liability and Debt & Derivatives Investment Network, Aladdin)에 ESG 요소를 통합시켜 모든 액티브 투자 및 사모투자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알라딘은 현재 다양한 인덱스 및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과 포트폴리오 엔지니어링 도구가 결합되어 핵심 투자 전략 등에 활용되는 투자 플랫폼이다. 블랙록의 액티브 투자팀은 이미 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고려하여 액티브 운용자산 중 ESG 고위험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는 없으나, ESG 투자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대 차원에서 알라딘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심각한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액티브 포트폴리오에 강화 정밀 조사모델(Heightened-Scrutiny Model)을 사용할 계획이다. 투자 이후 검토 과정도 강화해서 블랙록의 모든 투자에 대한 거래상대방·운영 리스크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분석팀(Risk and Quantitative Analysis, RQA)이 ESG 리스크 정도와 적절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고객들에게 ESG를 고려한 ETF 및 펀드 등 관련 상품을 지속 개발·출시하며 투자상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자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5월 말 기준 블랙록은 글로벌 시장에서 26개의 ESG ETF를 운영 중이며, 이 중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는 운용 규모가 179억 달러(2021년 6월 14일 기준)에 달하며 AUM(Asset Under Management) 기준 미국 내 1위 ESG ETF로 꼽힌다. 동 ETF는 ‘MSCI USA Extended ESG Focus Index’ (미국 상장 대형주와 중형주 중 담배, 무기, 화석연료 관련 기업을 제외하여 지수 산출)를 추종하는 ETF로 2016년 12월 1일 출시했다. 향후 블랙록은 지수제공업체 등과의 협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벤치마크의 표준화와 투명성 개선에 동참하는 한편 네거티브 스크리닝 또는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 등을 적용한 ESG ETF를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ESG를 고려한 다양한 펀드 상품을 향후 150개로 늘리고, 모든 포트폴리오에 ESG 통합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투자자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 블랙록은 투자자에게 iShares 웹사이트상 각 펀드의 지속가능성 정보로 ESG 점수 및 등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보다 풍부한 ESG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랙록은 2021년 말까지 주식 및 채권펀드 등에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등 세부 정보와 ‘온도 정렬 매트릭스(Temperature Alignment Metric)’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블랙록 Aladdin 플랫폼 내 ESG 고려



Source: BlackRock 홈페이지

» 블랙록의 주요 ESG ETF

ETF명	출시일	순자산 규모(억 달러)	벤치마크지수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1	179	MSCI USA Extended ESG Focus Index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28	78	MSCI Emerging Markets Extended ESG Focus Index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28	60	MSCI EAFE Extended ESG Focus Index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4	59	S&P Global Clean Energy Index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7	36	MSCI USA Extended ESG Leaders Index

Source: <https://www.ishares.com>

Note: 순자산은 2021년 6월 14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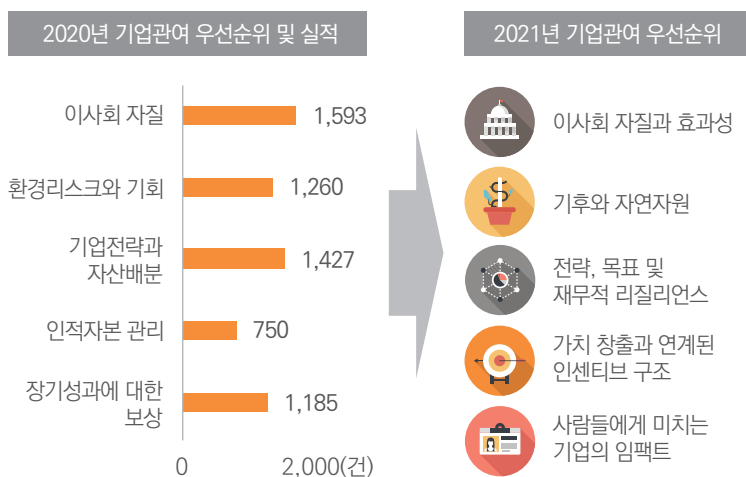
블랙록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지속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 기업관여(Engagement)와 의결권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 ”

넷째, ETF 등을 통해 블랙록은 전 세계 기업의 대주주로 역할하는 만큼, 기업의 건전한 지배 구조와 지속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 기업과의 대화 등 기업관여(Engagement)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책임있는 수탁자'로 역할하고 있다. 블랙록은 8개 지역 총 50명으로 구성된 블랙록 투자 스튜어드십(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BIS)팀을 운영하여 기업 관여의 우선순위 결정,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설정과 검토, 의결권 행사 실무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블랙록은 사전적으로 기업관여의 우선순위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실행 방안, KPI 등을 공개하여 기업과 이해당사자들이 블랙록의 지향점을 명확히 알도록 하고, 경제 사회적 변화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이를 검토한다. 블랙록은 2020년 중에는 기업의 이사회 자질, 기업전략 및 자산배분, 환경 리스크 및 기회, 장기성과에 대한 보상, 인적자본 관리에 중점적으로 관여할 것임을 밝힌 데 이어 2021년에는 이사회 자질과 효과성, 기후와 자연자원, 전략과 목표 및 재무적 리질리언스, 가치 창출과 연계된 인센티브 구조,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업의 임팩트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블랙록의 기업관여는 증가세로 2020년의 기업관여 수는 3,020건이며 2017년(1,273건) 대비 2.4배 증가했다. 또한 블랙록은 2020년 총 16,200건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 중 37%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장기 이익과 결부되지 않는 최소 1개 이상의 경영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블랙록은 2020년 상반기 말 글로벌 440개 탄소집약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의 ESG 통합과 공시를 점검하여, 55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 반대를 행사하고 191개 기업에 대해서는 감시 명단(Watch list)에 포함시켜 개선 정도에 따라 2021년 의결권 반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블랙록은 자사의 스튜어드십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주기를 기존 연간에서 분기로 바꾸고, 주요 의결권 행사 내역을 즉각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고려하고 이를 기업이 개선하지 못한 경우 경영진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할 것도 선언했다. 블랙록의 투자 기조는 자본시장 내 책임있는 수탁자의 롤 모델로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블랙록의 기업관여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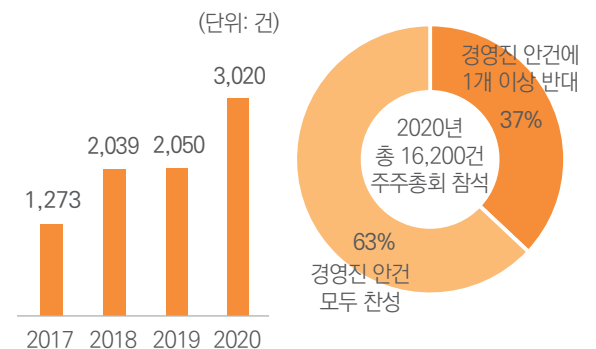


Source: BlackRock(2020),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Annual Report.,

BlackRock(2021), Our 2021 Stewardship Expectations.

Note: 2020년 우선순위와 2020년 상반기 기준 관여 수

## 블랙록의 기업관여 추이 및 의결권 행사 내역



Source: BlackRock(2019), 2019 Investment Stewardship Annual Report., BlackRock(2020), Our Approach to Sustainability: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Source: BlackRock(2020),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Annual Report.

“ 슈로더, 전사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impactIQ 등 과학적인 투자 툴 개발 ”

(2)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자발적 공시 확대를 추진하는 슈로더(Schroders)

1804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슈로더(Schroders)는 2020년 말 기준 5,744억 파운드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기업 대상 리스크 관리 및 재무관리 서비스(33%), 기관투자자 대상 금융상품(28%), 뮤추얼 펀드사업(18%), 자산관리(13%), 사모투자 및 대체투자(8%)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슈로더는 ① ESG를 고려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 집중, ② ESG를 포함한 기업 장기성과와 연동된 성과보수 체계, ③ 적극적 주주권 행사, ④ ESG 관련 정보 공시의 양적·질적 우수성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자산운용사로 꼽힌다. 이에 Impact/ESG Manager of The Year 2020, Best Investor Engagement 2020, SUSTAINEXTM-Award for Impact Measurement/Impact Reporting 2020 등으로 선정되었다. 슈로더의 지속가능투자 자산은 2020년 말 기준 33억 파운드로 모든 투자자산에 ESG 통합 전략을 적용 중이다.

첫째, 슈로더는 CEO를 수장으로 하는 ESG 집행위원회(ESG Executive Committee)가 전사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책임지며, 집행위원회와 주요 관리위원회 멤버들의 구성체인 ESG 운영위원회(ESG Steering Committee) 및 기업책임위원회(Corporate Responsibility Committee)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ESG 거버넌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슈로더의 지속가능팀은 1998년부터 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도구 개발, 투자팀 간 통합 지원, 적극적인 의견결 행사를 위한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특히, 2014년 슈로더는 비정형 데이터 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인사이트 유닛(Data Insight Unit, DIU)을 설립하였고, 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ESG 데이터를 확보·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으로, 지속가능투자팀은 DIU 등의 ESG 데이터 지원 등 전사적 네트워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슈로더는 ESG 요인과 결과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측정·모니터링 및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impactIQ'를 개발하여 ESG 임팩트 및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 슈로더 ESG 관련 지배구조 및 조직 구조

지배구조 및 감독 체계			
ESG 집행위원회 (ESG Executive Committee): 전사 지속가능성 전략 전반적 책임	ESG 운영위원회 (ESG Steering Committee): 지속가능성 전략 감독 및 실행	기업책임위원회 (Corporate Responsibility Committee): 기업의 지속가능 활동과 투자 연계	
지속가능투자팀			
리서치 & 툴(tool)	통합	적극적 의견결	상품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50개 이상의 지속가능성 투자 챔피언 (Sustainability Investment Champions): ESG 투자 모범사례 선정	30개 이상 지속가능성 활동 챔피언 (Sustainability Distribution Champions): 현지 시장 지속가능성 홍보대사	25개 이상 데이터 인사이트 유닛(DIU): 비정형 데이터 활용한 지속가능성 통찰력 확보	

Source: Schroders(2021), Sustainable Investment Report: Annual Report 2020.

» 슈로더의 ESG 투자 툴 'impactIQ'

ESG 임팩트 측정 수단	지속가능성 주요 테마 측정 수단
<p><b>SustainEx</b> 기업의 잠재적 환경 및 사회적 비용·편익 수량화</p> <p><b>Carbon VaR</b> 탄소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 영향도 산출</p> <p><b>Physical Risk</b>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평가</p>	<p><b>ThemEx</b>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성 측정 및 고객맞춤형 임팩트 목표 제공 솔루션</p> <p><b>Climate Alignment</b> 파리기후협정 탄소 감축 약속에 대한 이행도 측정</p>

Source: Schroders(2021), Sustainable Investment Report: Annual Repor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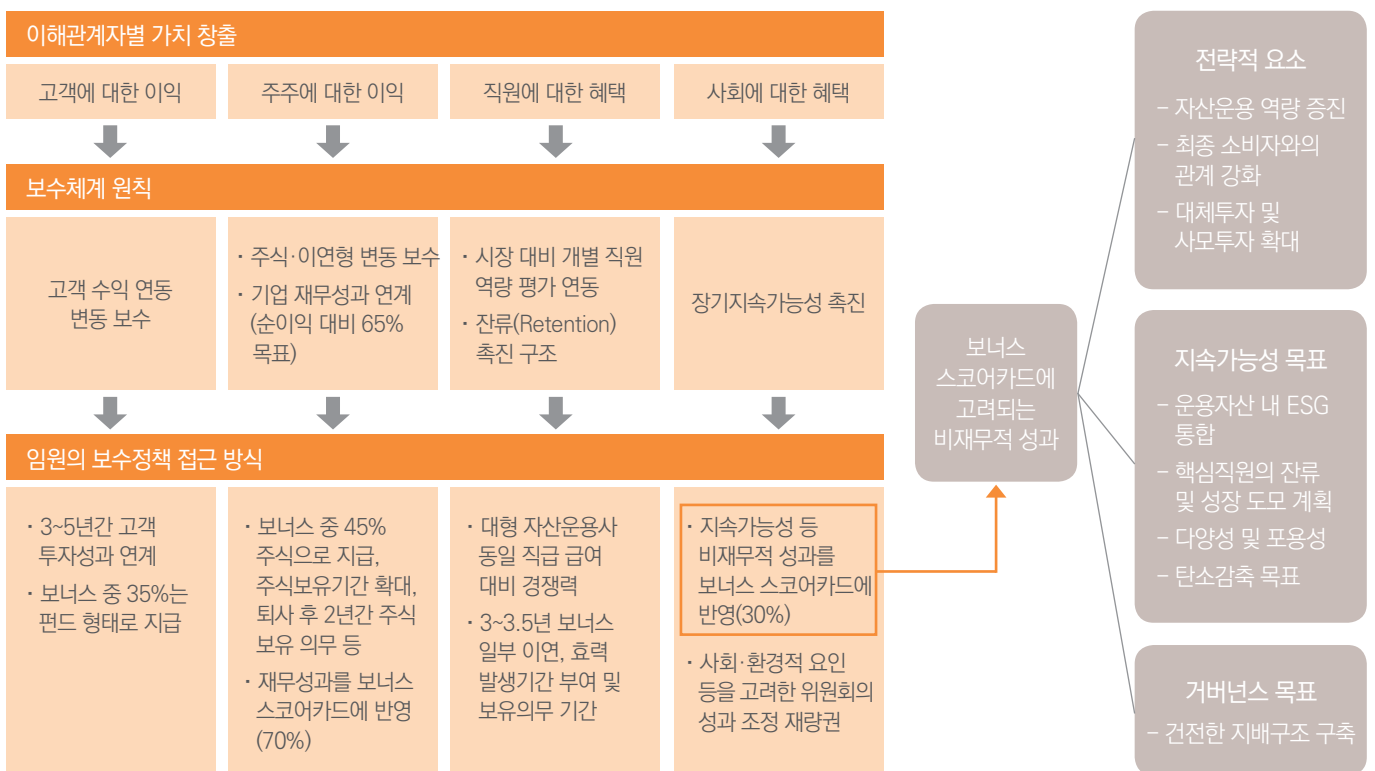
“ 슈로더, 기업의 장기성과와 연동된 보수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원 보수정책에는 비재무적 요인인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 목표 등도 고려 ”

이는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슈로더 독점 기술을 결합하여 펀드매니저와 다양한 기업 투자자에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한다. SustainEx는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데, 2019년 개별 국가의 특정 활동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비용과 편익을 25가지 척도로 정량화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150개 이상의 국가에 적용 중이다.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한 Carbon VaR는 탄소 비용 상승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추정 프로세스를 통해 배출량, 가격 및 수요 변화라는 세 가지 주요 변수를 파악한다. Carbon VaR는 순수 환경적 관점의 탄소 배출량 측정이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춘 분석 틀이며, Physical Risk 틀은 지구 온도 상승과 기후 문제로 발생하는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기업 자산가치 하락 비용과 리스크 등을 측정한다.

둘째, 슈로더는 ESG 등을 고려한 기업 장기 성과와 보수체계를 연동하고, 고객·주주·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도록 설계한다. 슈로더는 다수의 독립 이사회와 완전히 독립적인 감사·보수 및 리스크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 있는 임직원’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보상정책 원칙을 정한다. 임직원의 성과를 고객과 주주의 이익, 그룹의 재무성과 및 전략적 목표 등과 일치시키기 위해 간단하고 투명한 방식을 지향하며, 임직원 동기 부여를 위해 성과연계형 현금 및 주식연계형 보상을 지급한다.

이사회는 보수정책은 주주총회에서 의제로 다루지며 2020년 보수정책은 주주총회에서 98%의 지지율을 얻었다. 임원의 보수정책에는 재무적 성과 외 비재무적 성과(전략적 요소, 지속가능성 목표, 거버넌스 목표)를 포함하여 조직의 리더십이 그룹 전체의 비재무적 성과 증진을 촉진하도록 구조화했다. 각 임원은 비재무적 성과 중 하나를 자신의 보너스 스코어카드에 사전적으로 선택하여 위원회로부터 성과를 평가받는다.

» 슈로더의 보수정책(2020년 기준)



Source: Schroders(2021),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

“ 슈로더, 역량 집중도를 차등화하며 다양한 기업관여 적극 실행, ESG 투자활동 세분화와 보고 빈도·내역 투명성 제고 ”

셋째, 슈로더는 기업과의 대화, 기업관여, 의결권 행사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ESG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슈로더의 기업관여는 지속가능투자·포트폴리오 관리자 및 재무분석가 등이 지역과 범위에 따라 각 Tier별로 회사 대표와의 일대일 미팅, 서면, 전화, 투표, 다른 투자자와의 공동 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슈로더의 기업관여 우선 순위는 ① 고객의 자산 규모 및 개별 회사에 대한 익스포저 중요도, ② 논란이 되는 이슈와의 관련성, ③ 기업의 ESG 고려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하며,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팀이 주도하며, 특정 지역 내 이슈는 해당 지역 내 전문적인 슈로더 펀드매니저가 이를 주도하며 차별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고 있다.

기업관여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0년에는 전 세계 58개국 1,490개 기업에 대해 2,150여 건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대상으로 기업관여를 진행했다. 또한 슈로더는 모든 주주총회 결의안에 대해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2020년 중 총 6,500여 건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전체 결의안 중 99%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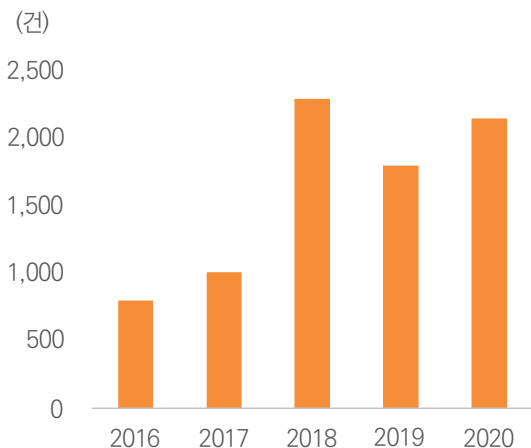
넷째, 슈로더는 ESG 투자활동에 대한 공시 범위와 빈도 등에 있어서 양적·질적 수준이 우수하다. 현재 ESG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자사의 ESG 주요 정책방향 및 ESG 영향도, 투자기업별 주주권 행사 내역, 기업관여 후 기업의 변화 상황 등에 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또한 월 단위로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결의안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 역시 모두 공시하고 있다.

» 슈로더의 Tier별 기업관여 수(2020년)

좁은 이슈 ↑	Tier	기업관여 수준	기업관여 수(건)
	1	지속가능투자팀 주도 심화된 기업관여	233
2	해당 지역 슈로더 펀드매니저 주도 기업관여	388	
3	협력형 기업관여 및 기대 수준 전달	1,535	
4	지속가능성 이슈 등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15,300	
↓ 광범위한 이슈	5	공공정책 및 산업 참여 등을 통한 시장 차원의 대응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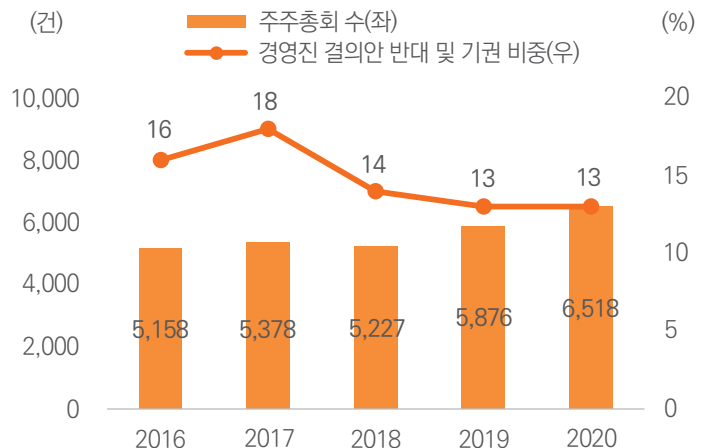
Source: Schroders(2021), Sustainable Investment Report: Annual Report 2020.

» 슈로더의 기업관여 수 추이(Tier 1~3 기준)



Source: Schroders(2021), Sustainable Investment Report: Annual Report 2020.

» 슈로더의 주주총회 참여 및 투표 추이



Source: Schroders(2021), Sustainable Investment Report: Annual Report 2020.

## 고객과의 접점에서 지속가능금융을 도모하는 BBVA와 HSBC

### (1)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고객 만족과 금융포용성을 강화하는 BBVA

“ BBVA는 지속가능금융의 목표 설정과 6가지 전략 우선순위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금융포용성 도모 ”

방코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BBVA) 그룹은 1857년 스페인에 설립되어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과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25개국에서 798만 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7,25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글로벌 금융그룹이다. 2021년 3월 말 기준 BBVA 총자산은 7,197억 유로, 순대출규모는 3,228억 유로, 예금은 3,311억 유로에 달한다. BBVA는 무엇보다 선도적인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금융상품의 53%가 디지털 채널로 판매되고 있다. BBVA는 ① UN SDGs 목표와 연계된 자사의 목표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②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특히 ③ ‘금융포용성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등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BBVA는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ESG 가치를 비즈니스 전략에 내재화하며 연계하고 있다. BBVA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시대로 이행’을 자사 지속가능금융의 목표로 설정하고, ① 고객의 금융 건강도(Financial Health) 제고, ② 금융 접근성 강화, ③ 최고이자 최상의 팀 구현, ④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고객 지원, ⑤ 운영효율성 강화, ⑥ 데이터와 기술이라는 6가지의 전략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즉, 금융회사의 ESG 가치를 사업전략에 녹였다.

둘째, BBVA는 지속가능목표와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지속가능금융을 이행 중이다. BBVA는 2004년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 2008년 PRI 등에 서명한 이후 2018년 Pledge 2025를 발표하여 2025년까지 녹색금융, 인프라, 금융포용성과 혁신기업가 등에 1,000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서약했으며, 이미 2018~2020년 중 목표치의 50%(501.6억 유로)를 이행했다.

### 》》 BBVA의 지속가능금융 목표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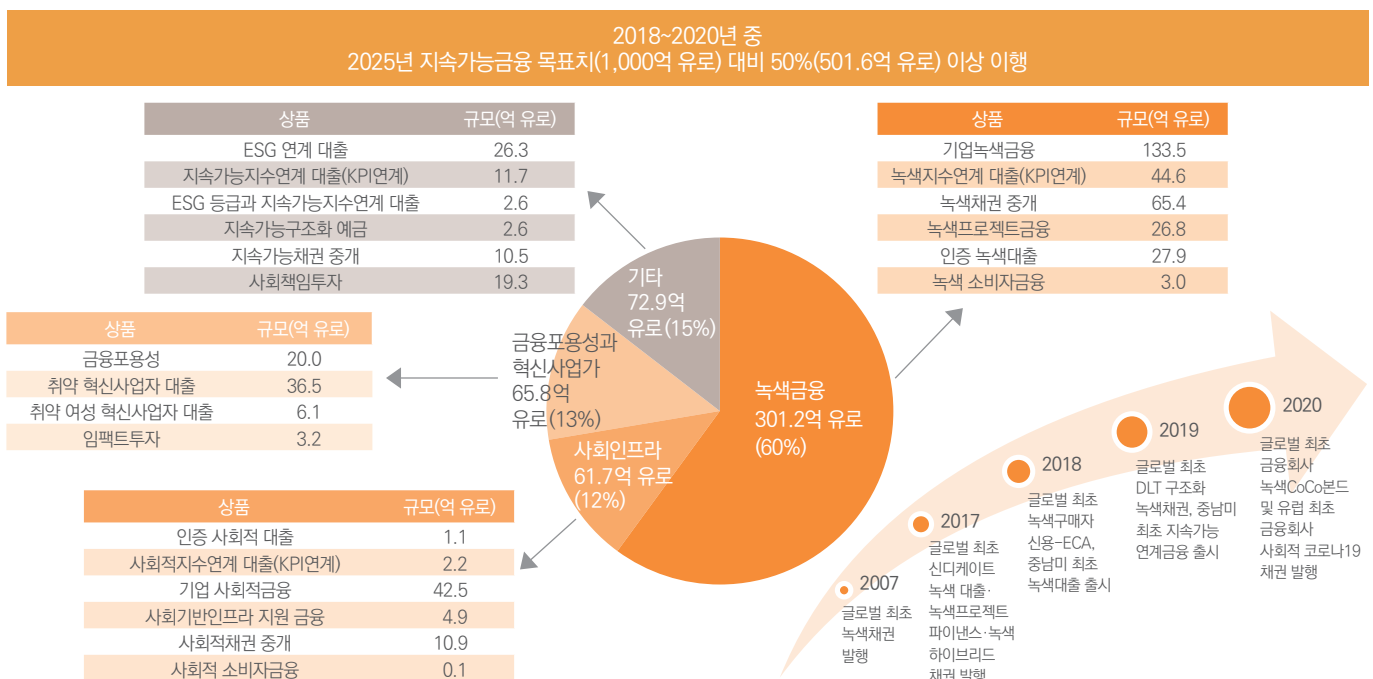
“ BBVA, 지속가능금융 적극 이행 중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하며 정교화 ”

이행내역을 살펴보면 녹색금융에 60%, 사회 인프라와 금융포용성 및 혁신 사업가 지원에 각각 12%, 13%의 자금을 배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에 방점을 두었다. 지속 가능금융상품 역시 다양성을 추구하며 진화 중이다. 2007년 세계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이후 2017년에는 신디케이트 녹색 대출,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 하이브리드 채권 등을 발행하며 보다 정교화된 상품을 개발 중이다. 2020년에는 미국, 중남미, 유럽의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43개의 ESG 관련 채권을 총 217억 6천만 유로 규모로 발행했다. ESG 각종 지수 등과 연계된 지속가능 대출 규모는 2020년 56.6억 유로를 포함해 2018~2020년 누적 총 116.3억 유로에 달한다.

소매금융과 관련해서 2019년 스페인에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구매,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기업 자금 조달 상품을 개발하고, 에너지 등급이 높은 부동산 개발업자 대출 상품, SRI 기준으로 관리되는 첫 개인연금인 BBVA Moderado ISR 등을 출시했다. 미국에서도 2020년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구입과 지속가능인증을 받은 주택 구입을 위한 개인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인증된 에너지 등급 부동산 취득 중소기업 대출상품 등을 취급한다.

셋째, BBVA는 핀테크 기업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등 신기술을 활용하며 금융접근성 및 포용성을 제고하는 등 보다 고객 중심의 금융상품 개발과 보급에 주력 중이다. BBVA는 디지털이 금융취약계층에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며, 모바일 플랫폼은 일반 소비자 시장(Mass Market)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분석은 서비스 개발과 리스크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BBVA는 금융포용성 관련 사업 모델 개발과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Easy Banking & Financial Inclusion Unit)를 운영하여 칠레와 페루의 BBVA 지갑, 멕시코의 SME banking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남미 지역 내 보다 편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 BBVA 2018~2020년 중 Pledge 2025 지속가능금융 이행 내역



Source: BBVA Group(2020.12), BBVA Report on TCF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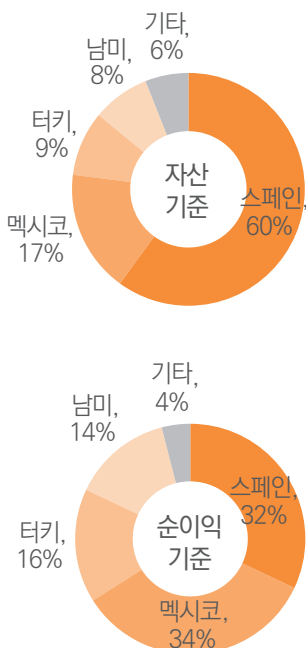
“

BBVA, 혁신적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 지속 출시, 금융포용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선제적 운영 ”

또한 BBVA는 신기술 활용 시 제휴사의 기술을 내재화하기보다는 플랫폼을 직접 연계하는 전략을 취한다. 혁신적 핀테크 기업 발굴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한 BBVA 오픈탤런트(Open Talent)팀은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행동 기반 신용평가 솔루션 핀테크 기업 데스타까메(Destacame), 멕시코 내 맞춤형 모바일 자금 및 디지털 대출 핀테크 기업 이페소스(ePesos), 아프리카 내 클라우드 기반 코어뱅킹 시스템 핀테크 기업 무소니(Musoni) 등을 ‘오픈 탤런트 금융포용성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특히, 데스타까메와는 2018년 본격적으로 협업하여 자사 대출 거절 고객이 데스타까메를 통해 고객 공과금 지불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BBVA가 추가적인 소액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서비스를 론칭했다. 또한 2019년 12월에 멕시코 BBVA와 우버(Uber)가 협업하여 BBVA 오픈 API를 활용하여 우버 기사가 실시간 결제 및 직불카드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넷째, BBVA는 금융포용성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다. BBVA는 2007년 미소금융재단(BBVA Microfinance Foundation)을 설립하여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지역의 경제발전과 금융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 중이다. 2021년 3월 기준 BBVA 순이익 지역별 비중은 멕시코(34%), 스페인(32%), 터키(16%), 남미(14%) 순으로, 장기적으로 자사의 고객 기반 확보와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페인 마드리드 외 콜롬비아 보고타와 멕시코에 핀테크 기업 발굴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열었으며, 2019년 BBVA 그룹은 은행 순이익의 2.4%에 해당하는 1,138만 유로를 BBVA 재단과 BBVA 미소금융재단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 외 BBVA 자체적으로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금융역량 강화 및 교육 사업을 시행 중으로 2008년 이후 8,900만 유로를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했다. 2019년에는 770만 유로를 투자하여 BBVA 플랫폼 내 금융교육 콘텐츠를 구축하여 2만 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사업도 시행했다.

## BBVA 지역별 자산 및 순이익 분포



Source: BBVA Group(2021), 1Q21 Results.  
Note: 2021년 3월 말 기준

## 지역별 BBVA의 위상 및 디지털 서비스

국가	시장 내 순위	시장 점유율(%)	디지털 활용 금융접근성·금융포용성 제고 사례
스페인	3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폰 은행 애플리케이션 출시('09), BBVA Wallet 출시('13. 12), 카드번호나 CVV가 없는 최초 신용카드 아쿠아(Aqua) 출시('20.10) 등</li> <li>BBVA 뱅킹 애플리케이션 내 973개 서비스 포함하며 DIY(Do-It-Yourself) 서비스 제공</li> </ul>
멕시코	1	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년 멕시코시티 내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개설하여 핀테크 기업 협업과 핀테크 생태계 구축 등 지원</li> <li>'18년 5월 멕시코 최초 은행권 애플리케이션 출시 이후 BBVA Wallet(전자 지갑), BBVA Plan(자산관리), BBVA Send(연방카드 등 대상 자금이체), Digital Mortgage(모기지 대출 관련 서비스), Apartados(현금흐름 관리), BBVA S.O.S(실시간 보험 관련 지급 및 각종 서비스 지원) 출시</li> <li>'16년 스타트업 오픈페이(Openpay) 인수 후 멕시코 내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 디지털 전자상거래 지원</li> </ul>
콜롬비아	4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년 보고타에 BBVA 오픈 스페이스 개설</li> <li>애플리케이션 활용 지문 이용 및 카드 없는 현금 서비스를 포함한 72개의 새로운 뱅킹 서비스 출시('19년)</li> </ul>
페루	2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R 코드 중심 BBVA Wallet 출시 및 뱅킹 애플리케이션 기능 지속 확대</li> <li>코로나19 이후 안면인식 이용 계좌 개설, 실물카드 없는 ATM 이용 등 기능 확장</li> </ul>

Source: BBVA Group(2021), 1Q21 Results., BBVA 홈페이지,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시장 내 순위 및 시장점유율은 2021년 3월 말 기준



## (2) 기후금융관련 신상품 기획 모색과 사이버·데이터 보안에 만전을 기하는 HSBC

“ HSBC, 2020년 지속가능금융 목표의 93%(930억 달러) 달성, 녹색채권 인수 및 주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금융 자금 조달 촉진 ”

HSBC는 2020년 말 기준 64개국에서 3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금융그룹이다. HSBC는 공시 및 이니셔티브 관련하여 국제통합 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와 TCFD 및 SASB 등을 따르며, CDP와 RE100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 ICMA)에서 제정한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등에도 가입했다. 2017년 RE 100 선언 이후 2019년 탄소감축 목표 달성률은 36%로 2025년까지 90%, 203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HSBC의 ESG 활동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넷제로 은행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투자 활동을 늘리면서 녹색채권 등의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디지털 은행을 지향하면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HSBC의 주요 ESG 활동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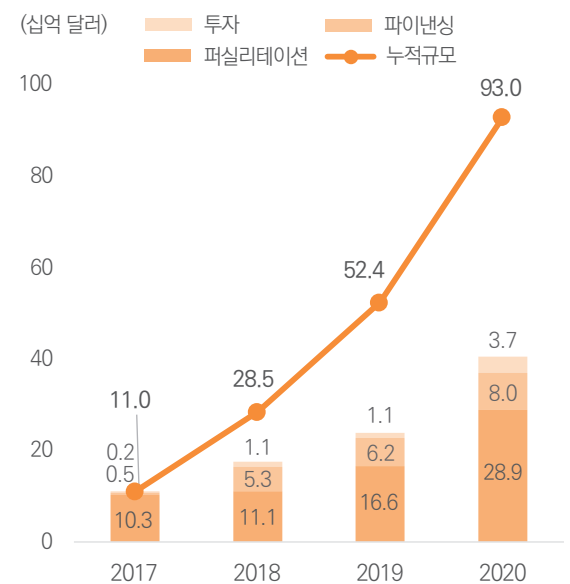
첫째, HSBC는 탄소배출 넷제로와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 등을 위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활동을 수행 중이다. HSBC는 신규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에 자금 제공 금지와 단계적 대출 축소를 선언하는 한편, 고객의 석탄 발전 사업 진행에 대해 추가 실사를 진행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2025년까지 지속가능금융 1,000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2020년 말 기준 목표치의 93%(930억 달러)를 달성했다. HSBC는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PF 등 파이낸싱, 녹색채권 등에 대한 투자, 녹색채권 등의 인수 및 주선 등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퍼실리테이션 부문은 2020년 말 누적 기준 669억 달러로 HSBC 지속가능금융 중 71.9%를 차지한다.

### » HSBC의 ESG 활동 현황

구분	활동 내용
환경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까지 공급망과 운영 전반에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 선언</li> <li>· '50년까지 파리기후협정 준수를 위해 포트폴리오 포함 모든 상품에 넷제로 달성 선언</li> <li>· '30년까지 지속가능한 금융 및 투자에 7,500억 달러~1조 달러 제공 예정</li> <li>· '25년까지 기후문제 지원을 위해 1억 달러 지원</li> </ul>
사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고객들의 디지털뱅킹 전환 비중 증가로 새로운 상품과 플랫폼 출시</li> <li>· 채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li> <li>· 여성의 고위 임원 비중 확대('20년 기준 30.3%)</li> <li>· 성별·인종·종교 등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li> <li>· 직원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등</li> </ul>
지배구조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신뢰회복 노력과 투명한 세금 납부 준수</li> <li>· 효율적인 금융 범죄위험관리를 위한 지원 제공</li> <li>· 이사회는 그룹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감독 및 그룹 감사위원회를 통해 ESG 보고 감독</li> <li>· 적극적인 의견권 및 기업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개 시장, 7,400여 개 기업 대상 78,000건 이상 의견권 행사 ('19년 기준)</li> <li>- 이중 71개 시장, 2,300여 개 기업들의 ESG 문제 등에 관여</li> </ul> </li> </ul>

Source: HSBC(2021),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0., HSBC(2021), Strategic Report 2020., 삼정KPMG 경제연구원

### » HSBC 지속가능금융 규모 추이



Source: Statista, HSBC 홈페이지  
 Note1: 투자는 녹색채권이나 펀드 운용  
 Note2: 파이낸싱은 환경관련 기업이나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PF, 녹색대출 등 금융상품 제공 녹색대출 등 금융상품 제공  
 Note3: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은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의 인수 및 주선 등을 통해 기업고객에게 자금조달 촉진 활동

“

HSBC,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녹색채권 인수 및 발행에 적극적 ...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위한 3단계 전략 방안 추진 ”

특히, HSBC는 녹색채권 인수·주선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0년 중 HSBC는 81건, 98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회사채 및 국제 기준)을 인수·주선하면서 동 부문에서 4.2%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녹색채권 발행 부문에서 2015년 HSBC France가 5억 유로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 이후 15년 만기의 녹색 구조화 채권(Green Structured Bond), 주가 연계 녹색채권(Equity Linked Green Bond) 등 2020년 10월 기준 17개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HSBC가 녹색채권 발행이나 인수 등에 적극적일 수 있는 주요 원천은 이미 2015년부터 ICMA의 녹색채권 원칙(Green Bond Principle, GBP) 등을 반영한 녹색채권 프레임워크(Green Bond Framework)를 사전적으로 마련하여 투자자의 신뢰와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이다. HSBC의 녹색채권 프레임워크는 녹색채권 & 대출 위원회(Green Bond & Loan Committee, GB&LC)가 관리·감독하며, 현지 은행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 Group Sustainability가 평가하여 최종 비준한다. 이에 따라 HSBC의 녹색채권 등은 그린 워싱을 예방하며 녹색 빌딩과 재생에너지, 클린 운송 등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둘째, HSBC는 고객 자산 보호와 전사적 리스크 관리 및 사업 확장을 위해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HSBC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사업을 확장 중으로 전 세계 3,9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직원의 재택근무 확산과 고객의 디지털 수단 활용도 증가 등으로 은행 사이버 보안과 고객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HSBC는 2020년 말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재편하여, ① 단기(사이버 리스크 위험성 강조 및 내부 직원 교육 강화), ② 중기(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상시 대비 절차 수립), ③ 장기(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전환, 미래지향적 은행 인프라 수준 개선 등)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중기 전략으로 사이버 보안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 강화, '재택-기업 인프라-거래 프로세스' 간 사이버 안전성 강화와 비즈니스 상시 관리 계획 마련,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이버 리스크 평가, 사이버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 》 글로벌 녹색채권 리그테이블(2020년 기준)

	순위	거래총액 (십억 달러)	시장점유율 (%)	거래 건수 (건)
JP Morgan	1	14.0	6.1	85
BNP Paribas	2	13.2	5.7	75
Credit Agricole CIB	3	11.6	5.0	58
Citi	4	10.5	4.5	64
HSBC	5	9.8	4.2	81
Barclays	6	9.7	4.2	55
Deutsche Bank	7	8.7	3.8	60
BofA Securities	8	8.7	3.7	74

Source: Bloomberg

Note: 회사채 및 국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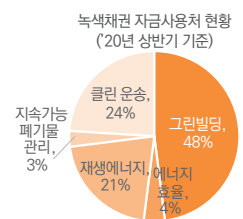
## 》 HSBC의 주요 녹색채권 현황

채권유형	발행일	규모	만기
녹색채권	'18.11.27	12.5억 유로	6년
녹색 구조화 채권	'18.05.01	1억 유로	15년
주가연계 녹색채권	'17.03.27	3,800만 유로	8년
Green Certificate of Deposit	'20.02.12	2억 HKD	1년 미만

Source: HSBC(2020.10), Green Bonds Report.

## 》 HSBC의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구분	주요 내용
자금 사용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에너지 효율 빌딩, 클린 운송, 기후변화 적응</li> <li>· 단, 원자력, 무기, 도박, 술, 석탄 또는 팜오일 관련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금지</li> </ul>
프로젝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사용처 선정과 적격성 확인</li> <li>· 현지 은행이 자금 사용처 제안</li> <li>· Group Sustainability가 녹색채권 프레임워크에 따라 ESG 요소 및 컴플라이언스 검토</li> <li>· 녹색채권 및 대출 위원회(GB&amp;LC)가 적격 여부 승인</li> </ul>
조달자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SBC의 녹색 자산 등록소(HSBC's Green Asset Register)를 통해 자금 사용 관리</li> </ul>
사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자금이 전체 배분될 때까지 매년 모든 이슈에 대한 통합 녹색 진행 보고서(Green Progress Report) 발행 및 공개</li> <li>· 녹색채권 및 대출위원회(GB&amp;LC)가 프로젝트 등 할당금액·비즈니스 및 프로젝트 유형·HSBC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적격성 등을 포함하여 보고서 검토·승인</li> </ul>



Source: HSBC(2020.10), Green Bonds Report.

## ESG 내재화를 통해 장기 리스크 등의 인수와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알리안츠와 다이이치 생명보험

### (1) 금융그룹 내 ESG 전략을 전사적으로 통합, 금융상품과 투자 역량을 제고하는 알리안츠(Allianz)

“ 알리안츠는 DJSI에 편입된 11개 대표 보험사 중 하나로 보험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 관련 익스포져 축소 선언 ”

알리안츠 그룹은 지주회사인 알리안츠 SE를 중심으로 재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한편, 자회사인 PIMCO와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Global Investors, GI)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최대 보험금융그룹이다. 알리안츠 그룹은 2020년 말 기준 고객자산 1.7조 유로를 포함하여 총 운용자산은 2.2조 유로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투자기업 중 하나로 총매출은 1,404억 유로, ROE는 11.4%에 달하며, 탄탄한 자산과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알리안츠는 기후변화와 탄소제거(Climatic Change and Decarbonization),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ESG 경영 통합(ESG Business Integration)이라는 세 축을 핵심으로 ESG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미 2000년 초반 지속가능성 관련 웹페이지 개설 및 관련 보고서 발간 등 ESG 이슈에 대응하며 2000년 이후 다우존스지속가능 인덱스(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에서 상위 기업으로 꼽혔다. 2019년에는 UN이 결성한 넷제로를 위한 투자자연합(Net-Zero Asset Owner Alliance)의 창립 멤버로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하고, 2019년 대비 2025년까지 상장주식과 회사채의 온실가스 배출량 25% 저감 등을 발표했다. 보험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도 파트너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2040년까지 투자 및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석탄, 탄광 관련 사업 제외 계획(Allianz Coal Phase-Out Plan)을 발표했다.

### 알리안츠의 ESG 및 환경 관련 거버넌스 구조



Source: Allianz Group(2021), Sustainability Report 2020.

Note: GFRC(Group Finance and Risk Committee), GUC(Group Underwriting Committee), GIC(Group Investment Committee)

“ 알리안츠, 건전한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모든 비즈니스 라인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요소 통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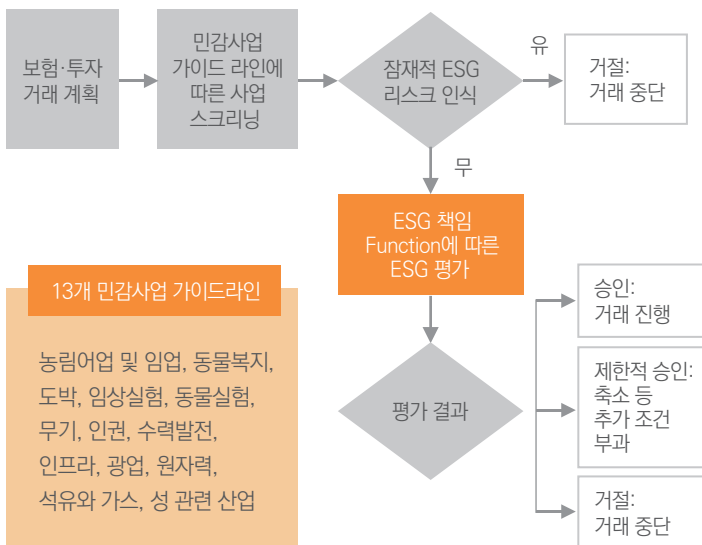
“ ESG 리퍼럴 프로세스 등을 통해 일관된 사업 전략 추진과 다양한 지속가능 보험상품 출시 ”

알리안츠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70개국 이상, 15만 명 이상의 직원을 둔 대형 금융그룹으로 금융 그룹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2012년 ESG 요소를 사업 전반에 통합하려는 일환으로 그룹 ESG 이사회를 설립했다. ESG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관리하여, 그룹 내 보험과 투자 결정 관련 모든 비즈니스 라인과 의사결정에 ESG 요소를 통합하며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이슈와 기업참여 등을 책임진다. 또한 그룹의 재무 및 리스크 위원회(Group Finance and Risk Committee, GRFC), 그룹 인수위원회(Group Underwriting Committee, GUC), 그룹투자위원회(Group Investment Committee, GIC)가 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언더라이팅, 투자 과정에 ESG를 포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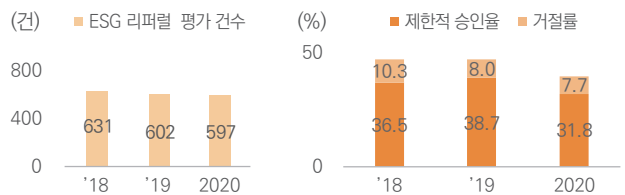
2021년 1월부터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를 두어 알리안츠 그룹의 ESG 의제를 총괄하는 한편, 글로벌 지속가능성 그룹센터(Group Center for Global Sustainability)를 신설하여 그룹 전체의 지속가능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2021년에 감독이사회 산하 지속가능위원회(Sustainability Committee)를 두어 경영진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인사위원회의 ESG 관련 목표 설정 등을 면밀히 감독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글로벌 기업이라는 특징을 반영하여 그룹센터는 각 지역에서 ESG 거래 평가를 담당하는 지역전문가 네트워크와도 협업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구축하도록 지원 중이다.

둘째, 전사적으로 보험상품과 서비스 및 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SG 리퍼럴 프로세스(Referral Process)는 보험과 비상장 투자 거래와 관련해서 인권, 농림업, 오일·가스, 핵에너지 등 ESG 이슈에 민감한 13개 사업 영역에 대해 ESG 민감사업 가이드라인(ESG Sensitive Business Guideline)을 적용하여 사업 여부를 진행하도록 설계했다. ESG 민감사업 가이드라인은 각 산업별 기준을 설정하여 활용되며, 2020년 중 그룹 차원에서 597건의 사업이 ESG 리퍼럴 프로세스를 통해 평가되어 이 중 31.8%는 제한적으로 승인되고, 7.7%는 거부되었다.

» 알리안츠의 ESG 리퍼럴 프로세스



» ESG 리퍼럴 프로세스 평가 건수 및 승인율



Source: Allianz SE(2021), Allianz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20.

» ESG 프로세스와 알리안츠 사업별 적용

ESG 프로세스	보험	자기매매	
		상장	비상장
ESG 리퍼럴 프로세스	○		○
ESG 민감사업 가이드라인	○		○
민감 국가 리스크	○		○
ESG 점수기법		○	
ESG 기업참여 접근		○	○
ESG 리스크 관련 기업 대화	○		
ESG 배제 전략	○	○	○
자산운용사 선정 및 검토		○	○
ESG 사업 기회	○	○	○

Source: Allianz SE(2021), ESG Integration Framework.



Source: Allianz SE(2021), ESG Integration Framework.

상장주식 투자에 대해 적용하는 ESG 점수기법(ESG Scoring Approach)은 ESG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MSCI 점수 등을 통합하며, 점수가 임계값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설명 또는 투자 배제를 요구한다. 이외에도 2015년 구축한 석탄 기반 비즈니스 모델 (Coal-based Business Model)에 기반한 배제 정책, ESG 요소를 고려한 자산운용사 선정 및 검토, 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테마 투자, 보험 고객과 피투자기업 및 자산운용사와의 정기적 대화와 의견 교환 등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2020년 중 알리안츠는 지속가능 보험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 총 232개 지속가능 금융상품을 통해 전년대비 37% 증가한 18억 789만 유로의 수익을 달성했다. 또한 2020년 중 지속가능성 테마투자(393억 유로) 및 고객자산에 대한 지속가능성·ESG 전략 투자(2,319억 유로) 등을 진행했다.

“ 알리안츠, 성과보수 체계와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적자원 관리로 사회적 가치(S) 실현 ”

셋째, 알리안츠는 인적 자본 관리 측면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성, 인력 양성 및 개발, 직원 참여 등을 중시한다. 직원 참여와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해 전 세계 임직원에서 '동일 업무-동일 임금 지급' 원칙하 조직 전체의 리스크 통제와 개인 성과 연동을 고려한 성과 보수체계를 시행 중이다. 2020년 알리안츠는 종업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Employee Stock Purchase Plan)을 영국에도 확대하여 장기 성과와 종업원의 이익을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과 개발이 금융 산업의 핵심 차별화 요소라는 관점에서 이니셔티브 '#learn'을 시작하여 현장형·평생 학습을 촉진한다. 그리고 보험 언더라이팅과 가격 책정에 특화된 Property & Casualty and Life & Health Academy, 전 세계 직원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LinkedIn Learning 등을 운영한다. LinkedIn Learning의 경우, 2020년 알리안츠 직원들의 48%(68,500명 이상)가 등록했다. 2020년부터는 학위 기반의 학습 플랫폼 Allianz University(AllianzU)를 디지털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며,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인 알리안츠 리더십 패스포트(Allianz Leadership Passport), 임원진 교육 프로그램 알리안츠 경영 프로그램(Allianz Management Program, AMP) 등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직원 교육 개발에 6,310만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이직률과 여성비율 지표 등이 개선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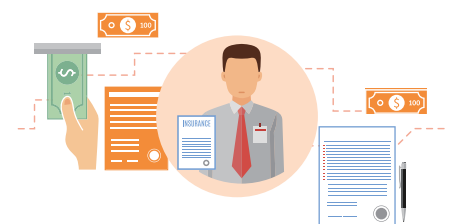
» 알리안츠의 ESG 관련 사업 성과

	'18	'19	'20
지속가능상품 수(개)	191	228	232
지속가능한 보험상품	102	109	106
지속가능성 요소 포함 보험상품	40	39	38
신규 고객 상품	16	28	27
지속가능 자산관리 상품	33	52	61
지속가능상품으로 인한 수익(백만 유로)	1,281	1,371	1,879
지속가능한 보험상품	883	964	1,383
지속가능성 요소 포함 보험상품	371	367	440
신규 고객 상품	26	41	56
2015년 11월 이후 석탄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투자 회수(백만 유로)	6,033	6,283	6,331
ESG 기업관여 수(개)	12	49	68
지속가능테마 투자(자기매매)(십억 유로)	25.1	29.5	39.3
재생에너지 투자	6.8	7.2	6.8
인중 녹색 빌딩	13.3	14.6	18.3
녹색채권	3.6	5.6	9.6
지속가능채권	0.4	1.0	1.5
사회적채권	0.8	0.8	2.7
임팩트투자	0.0	0.1	0.2
기타	0.2	0.2	0.2
고객자산에 대한 지속가능투자(십억 유로)	146.8	157.7	231.9

Source: Allianz SE(2021), Allianz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20.

» 알리안츠 인적자원 관련 현황

	'18	'19	'20
임직원 교육 비용 (백만 유로)	87.7	84.7	63.1
최소 1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직원 비율(%)	69.9	75.2	78.8
임직원 이직률(%)	16.6	16.5	12.9
임원 중 여성비율(%)	28.9	29.9	30.4
핵심부서 여성 비율(%)	51.2	51.3	51.3



Source: Allianz SE(2021), Allianz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20.

## (2) 인구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ESG 경영 목표에 반영한 다이이치 생명보험

1902년 설립된 일본 생명보험사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FY2020 연결기준 수입보험료 4.7조 엔, 총자산 63.6조 엔으로 법인 및 개인 의료, 개호보험, 암보험, 기업형·개인형 연금상품 등과 같은 생명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여 일본 내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대형 생명보험회사이다. 지주회사로서 2006년 다이이치 프론티어 생명(Dai-ichi Frontier Life), 2014년 네오퍼스트생명(Neo First Life) 등을 설립하며 현재 19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 중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FY2020 기준 수입보험료 2.3조 엔, 총 자산 38.9조 엔을 보유하는 등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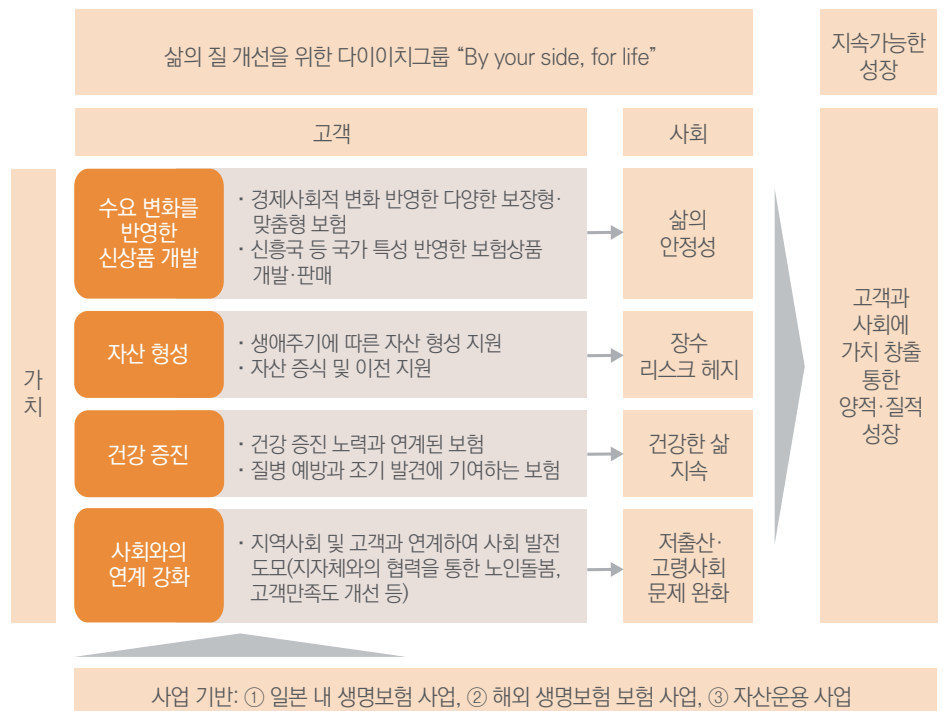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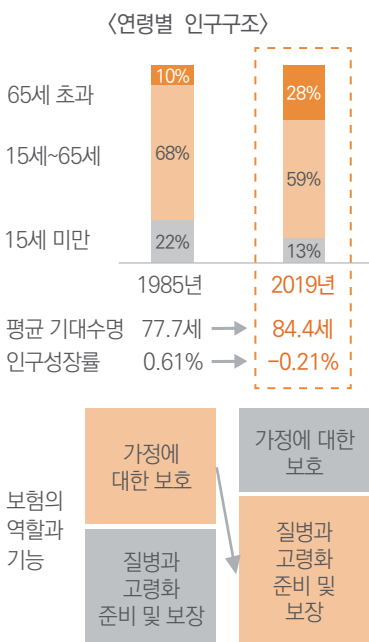
“ 다이이치 생명보험,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험사의 ESG와 지속가능성장 방향 재정립 ”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전사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일본 사회의 문제에 대응한 ESG 경영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여 이와 연계된 보험상품 개발, 실질적 ESG 통합 정책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통한 자산운용, 고객만족도 개선 등을 위한 고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영 노력으로 MSCI ESG 등급은 2019년 BBB등급에서 2020년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첫째,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일본 사회가 당면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속에서 보험의 역할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질병과 고령화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자산형성, 건강증진,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를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ESG 가치를 일본 및 해외 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사업 등 그룹 전체에 반영하여 보험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적·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다이이치 생명보험의 ESG 목표이다.

### ▶▶ 다이이치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ESG 가치와 장기 비전

일본 사회의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라 다이이치 생명보험이 추구하는 보험의 역할 변화







다이이치 생명보험,  
건강·장수 리스크 등을  
적극 인수한 보험상품,  
자산 형성 지원 상품  
및 건강증진형 혁신  
기술 활용 ”

둘째,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부상한 건강 리스크와 관련하여 치매, 간병 등 보장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는 한편 다양한 혁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전적 예방을 증진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는 ‘저스트(Just)’를 출시하여 출시 약 2년 3개월 만에 195만 건이 판매되기도 했다. 의료 및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고객 건강검진 장려를 통한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다이이치 라이프, 네오퍼스트가 중심이 되어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이와 연계되어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유도하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연금이나 저축형 상품 역시 출시 중이다.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확정급여형 기업연금 고객의 투자 전략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특별계정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고객별 투자자산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특별계정 2호’를 2020년 4월 출시했다. 다이이치 프론티어 생명 역시 2019년도부터 고정 월납형 외화표시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니코틴 중독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 회사 CureApp(10억 엔), 불면증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회사 SUSMED(1억 엔), AI를 활용한 약물 개발 지원 플랫폼 MOLCUBE(1억 엔), 고성능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기업 MODULUS(2억 엔) 등 건강과 의료 프로젝트, 헬스케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등 사회적 책임투자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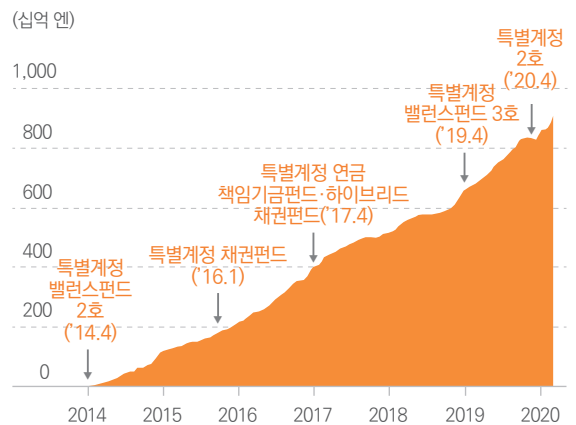
》 다이이치 생명보험의 보장형·헬스케어 연계 보험상품

구분	회사	보험상품	주요내용
보장형	다이이치 라이프	 저스트	· 소비자 수요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결합해서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보험상품 ‘Just’ 출시(‘18년 3월 출시) - 경제적 리스크 보장, 질병·치매·업무 장애 등에 대한 소득 지원 보장 등 - 출시 이후 누적판매규모: 90만 건(‘19년 3월 말) → 195만 건(‘20년 6월 말)
			· 치매보험(‘18년 12월 출시), 3대 질병에 대한 소득지원 단체보험(‘19년 9월) 등
의료 및 헬스케어	다이이치 라이프	 헬스 체크업 디스카운트	· 보험업계 최초 건강검진 결과 제출·결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18년 2월 출시) - ‘20년 6월까지 전체 가입자 중 80%에 할인 적용 - 헬스 체크업 통한 건강검진 인증 건수: 20만 건(‘17년) → 54만 건(‘19년)
		 켄코 다이이치	·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상태, 생활습관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질병 위험도 검사’ 수행 - 치매, 신경계 인지도 등에 대한 위험 정보 제공 및 건강증진 활동 도모
	네오퍼스트	 건강보험	· 고객 흡연습관 등 특정 건강상태 기준 충족 시 건강보험료 할인 적용
		 의료보험	· 헬스 체크업 결과에 따른 건강연령 제공, ‘켄코네레이 @1’ 기준 의료보험료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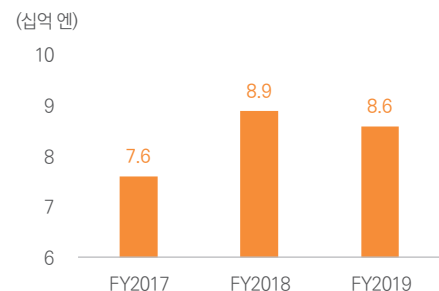
Source: Dai-ichi Life Holdings(2021), Sustainability Annual Report 2020.

》 다이이치 생명보험의 자산 형성 지원 상품

〈기업연금 자산 성장과 및 신상품 출시〉



〈저축형 상품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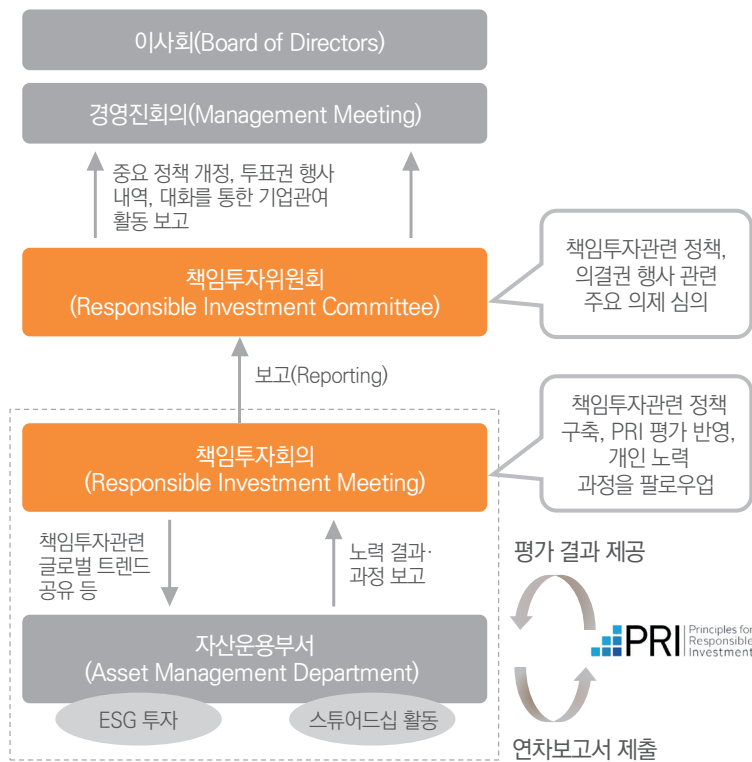
Source: Dai-ichi Life Holdings(2021), Sustainability Annual Repor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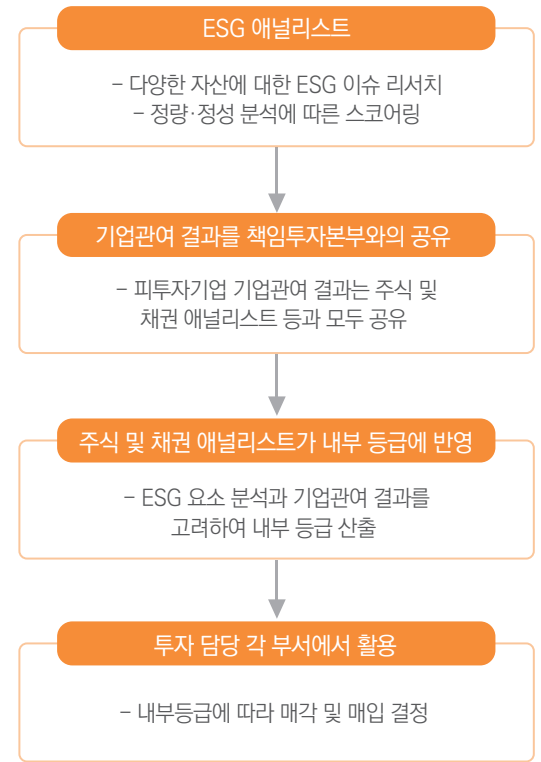
“  
다이이치 생명보험,  
ESG 통합 위한  
지배구조와 투자정책  
강화, ESG 리서치  
기능 확대하며  
내부활용도 제고 ”

셋째,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투자 과정 내 실질적 ESG 통합을 위한 정책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2015년 UN PRI에 서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책임투자 센터와 책임투자위원회 등을 설립했다. 자체 책임투자위원회는 책임투자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및 경영진 회의에 보고한다. 책임투자에 참여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책임투자회의에서 진행상황을 관리하며, 자산운용부서는 ESG 투자와 스튜어드십 활동 등 노력의 결과 및 과정을 책임투자회의에 보고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ESG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여 채권 및 주식 등 다양한 자산별 ESG 이슈를 리서치하여, 기업관여 등의 결과를 책임투자 본부와 공유하고, 내부 애널리스트가 이러한 결과를 취합하여 내부 등급을 산정하면 투자담당자가 이를 활용한다.

### ▶▶ 다이이치 생명보험의 ESG 위원회 지배구조



### ▶▶ ESG 리서치 및 결과에 대한 내부 활용 과정



Source: Dai-ichi Life Insurance(2021),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 2020., 삼성KPMG 경제연구원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FY2020 기준 38.9조 엔의 자산을 운용 중으로 자산운용에 있어 ESG 투자를 ① ESG 테마투자과 ② ESG 통합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하여, 중장기적으로 ESG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FY2023까지 ESG 테마 투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모든 자산군에 대해 ESG 요소를 고려하는 한편, 기업과의 대화나 의결권 행사 등을 더욱 확대하여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20년 8월까지 다이이치 생명의 누적 ESG 테마투자 규모는 6,600억 엔으로 SDGs사업과 SDGs채권에 각각 42.6%(2,800억 엔), 35.0%(2,300억 엔)이 투자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에 21.3%(1,400억 엔)가 투자되었다. 다이이치 생명 SDGs사업은 유럽, 아시아 등지의 사회 인프라 개발과 환경 보전 사업에 대한 투자이고, SDGs채권의 경우, 주로 세계은행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와 기업의 녹색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 발행에 참여했다.

“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해외주식 등 모든 자산에 ESG 통합 추진 및 고객과의 상호작용 통해 보험 분쟁 감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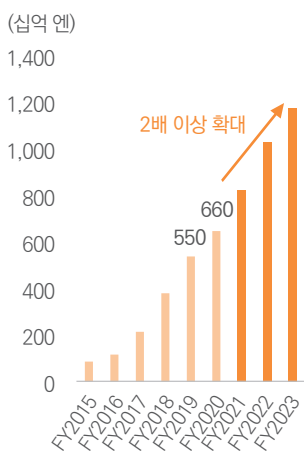
또한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현재 일본 국내 주식과 회사채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FY2023까지 모든 자산에 ESG 요소를 통합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국내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에는 환경(E)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2020년 9월부터는 내부에서 운용되는 해외 주식 자산 100%에 대해 MSCI ESG 지수 (MSCI ACWI ESG Universal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한다. 또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적용하여 석탄 전력 생산 기업과 광산 기업의 투자는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투자 배제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과의 대화 등을 통한 기업관여도 확대 중이다. 기업과의 대화는 FY2014 기준 110여 개에서 FY2020 기준 270여 개 사로 증가하였으며, 과거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관여에서 최근 그 범주가 확대되어 ESG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특히,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 관여가 강화되고 있다.

넷째,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경영 활동에 적극적이다. 다이이치 생명보험 소속 설계사(토탈 라이프플랜 디자이너)는 물론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완전판매와 대고객 컨설팅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험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 및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고, 고객 관련 이니셔티브와 사업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 관련 고객과의 분쟁 건수는 FY2019 기준 33,205건으로 2015년 대비 29.6% 감소하였으며, 고객의 감사 표현 건수는 동기간 53.3% 증가한 591,658건에 달한다.

» 다이이치 생명보험의 운용 자산 및 ESG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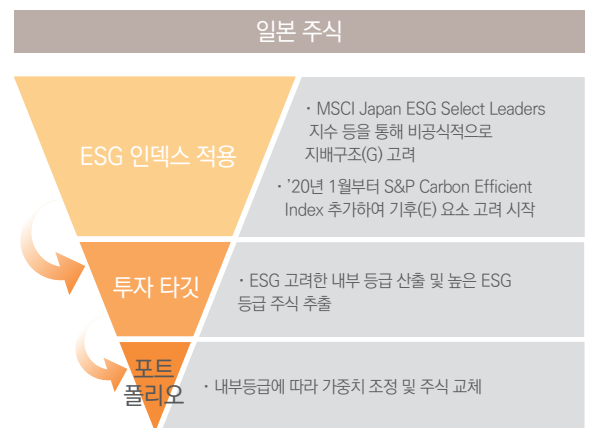
ESG 테마투자  
- FY2023까지 누적 투자 2배 이상 확대



ESG 통합  
- FY2023까지 모든 자산군에 ESG 요소 통합  
-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

	전략	현재	FY2023 비전
ESG 통합	주식·채권 평가 시 ESG 요소 고려	ESG 요소 고려	모든 자산(국채 및 개별 기업 등 포함)에 ESG 요소 고려
포지티브 스크리닝	국내 주식 및 해외 상장주식 대상	국내 주식 및 해외 상장주식 대상	모든 자산 대상
네거티브 스크리닝	석탄발전 및 광산 기업·프로젝트, 원자력 등 유해사업 관련 기업 투자 배제	석탄발전 및 광산 기업·프로젝트, 원자력 등 유해사업 관련 기업 투자 배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투자배제 기준 추가예정
기업과의 대화 등	'14년 이후 스튜어드십 활동 시작 및 확대 - 기업과의 대화: 110개 (FY2014) → 270개(FY2020)	'14년 이후 스튜어드십 활동 시작 및 확대 - 기업과의 대화: 110개 (FY2014) → 270개(FY2020)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

» 다이이치 생명보험의 포지티브 스크리닝 방식(예)



Source: Dai-ichi Life Insurance(2021),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 2020.

» 다이이치 생명보험 고객과의 피드백

	FY2015	FY2017	FY2019
고객과의 분쟁(건)	46,929	41,065	33,025
감사 표현(건)	385,930	650,152	591,658
개인 만족도 (%)	-	75.2	76.4

Source: Dai-ichi Life Insurance(2021),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 2020.

Note: MSCI-ACWI는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Source: Dai-ichi Life Group 홈페이지, Sustainability Data.

##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 사례로 본 ESG 경영

글로벌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과 비전을 살펴보면 ESG 실천을 위해 전사적으로 ESG 요소와 금융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건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강점과 비즈니스 성격을 결합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전사적 의사결정 체계와 세부 리스크 프로세스 및 투자 톨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일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사의 지속가능금융 경영 목표와 구체적 실행방안·금융 상품, ESG 투자 내역 및 ESG 경영 사항도 적극 공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책임도 이행 중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글로벌 금융회사,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목표의 장기  
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구축, ESG를  
전사 의사결정과정에  
유기적으로 내재화 ”

첫째, 글로벌 금융회사는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CEO의 철학과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선언하여 조직 전체의 ESG 경영을 넘어 경제사회의 지속가능금융을 조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블랙록 CEO 래리 핑크의 서한을 계기로 ESG 투자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와 금융회사에 ‘장기적으로 더 높은 위험조정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운용방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알리안츠나 HSBC, 다이이치 생명보험도 ESG 장기 경영 방향을 선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기업의 비전과 ESG 경영 철학을 확산하며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촉진자이자 실천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둘째, 각 금융회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금융 목표는 자사의 핵심 역량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면서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BVA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금융포용성 도모를 지속가능목표로 설정하고, 중장기 핵심 시장인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과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다이이치 생명보험 역시 일본 사회의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과 동남아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 금융회사가 ESG 중요성이나 공공성만큼이나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모든 금융회사들은 ESG 요소가 전사 의사결정 과정에 유기적으로 포함되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톱다운 방식의 ESG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무 차원에서도 ESG 요소가 투자 정책이나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체계에 내재화될 수 있는 협력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알리안츠는 2012년 ESG 이사회를 설립한 데 이어, 2021년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를 선임하는 등 그룹 전체가 ESG를 주요 어젠다로 가져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슈로더는 ‘ESG 집행위원회-ESG운영위원회-기업책임위원회’ 중심의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 설립한 데이터 인사이트 유닛(DIU)을 통해 ESG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부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넷째, 주요 금융회사는 보상정책에 장기지속성을 연계하여 건전한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슈로더는 동기 부여와 지속가능성 연계를 위해 임원의 보수 구조에 명시적으로 지속가능성 목표를 포함하였으며, 알리안츠 역시 ‘동일 직무-동일 임금 원칙’ 하 리스크와 성과 연동형 보수 체계, 종업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보상정책 및 구조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임원의 보상정책에 포함하여 ESG를 내재화한 인센티브 구조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ESG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과학적 ESG 투자 톨 확보하며 신상품 개발에 박차 ”

“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하며, 지속가능성장 도모를 위한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

다섯째, ESG 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리서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블랙록은 투자 스텐더십(BIS) 팀이 기업관여의 우선순위 결정,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설정과 검토, 의결권 행사 실무 등을 전담하며,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ESG 애널리스트가 자산별 ESG 리서치와 정량·정성적 분석에 기초해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투자 담당 각 부서가 이를 공유하여 의사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정립 중이다. 각 금융회사별로 비즈니스 라인에 ESG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실무 책임이 가능한 전담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ESG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ESG 투자 톨과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ESG 투자와 통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블랙록은 핵심 투자 톨인 알라딘(Aladdin)에 ESG 요소를 통합하여 모든 포트폴리오의 ESG 리스크를 측정·확인·검증하고 있으며, 슈로더는 ESG 임팩트 측정·평가와 투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impactIQ’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또한 알리안츠는 ESG 민감사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ESG 리퍼럴 프로세스(Referral Process) 등을 운영하며 일관적인 ESG 투자 방식을 구축 중이다. ESG 리스크는 다양한 인과관계를 통해 재무적·비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만큼 이를 식별·측정·평가하는 과정이 일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회사는 자사의 노하우와 전략이 내재된 과학 기반의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일곱째, 글로벌 금융회사는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블랙록의 경우 확대되고 있는 인덱스 투자 시장에서 다양한 ESG ETF와 펀드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BBVA은 디지털 금융을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미국, 중남미, 유럽 기관투자자 대상 ESG채권 및 구조화 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전기차 구매,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과 연계된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민간부문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HSBC는 2015년부터 ICMA의 녹색채권 원칙(GBP) 등을 반영한 녹색채권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녹색채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여덟째, ESG에 대한 공시 강화이다. 슈로더나 블랙록 등은 기업관여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해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을 넘어, 세부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고 빈도를 높이고 있다. 블랙록은 자사의 각종 투자상품에 대해 MSCI 지속가능성 정보 외 더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즉, ESG 정보 공시가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사의 ESG 경영과 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홉째, 각 금융회사는 사회와 임직원의 발전이 자사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 중이다. BBVA는 2007년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여 중남미 지역 경제성장과 금융포용성 개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HSBC는 은행 내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 챔피언 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개인이 가정과 지인들에게 안전한 IT 습관을 전파하도록 유도한다. 다이이치 생명보험의 경우, 불완전 판매 가능성 차단과 고객과의 분쟁 감소를 위해 자사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대고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적자본 관리에도 탁월함을 보이는 알리안츠는 자사 보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 개선과 디지털 콘텐츠 추가로 직원 참여와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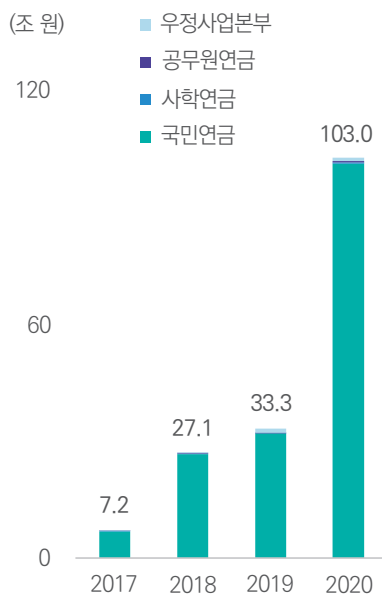
## Thought Leadership III

# 국내 금융업의 ESG 트렌드 전환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장 전략 방향



## 국내 지속가능금융 시장 동향 및 특징

### » 국내 ESG(책임)투자 시장 규모: 주요 연기금 중심



Source: 각 기금 홈페이지

### 연기금으로부터 시작된 지속가능금융,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 확대

국내 ESG(책임)투자는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투자 과정에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기준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21년 1월 우정사업본부도 동참하면서 국내 4대 연기금의 책임투자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이 중심이 되어 국내 ESG 투자를 이끌고 있다. 국내 ESG(책임)투자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약 103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국민연금 비중이 약 98%(101조 원)를 차지한다. 특히, 2020년 ESG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이 2019년 11월 책임투자원칙을 제정하면서 국내 주식의 책임투자규모 비중이 24%('19년)에서 57%('20년)로 확대된 데 기인한다.

### » 국내 ESG ETF 순자산가치 현황

ETF명(상장일)	'19년 말 (억 원)	'20년 말 (억 원)	'21년 5월 말 (억 원)	대비(배)	
				'19년 말 대비(배)	'20년 말 대비(배)
KBSTAR ESG사회책임투자('18.2.27)	75	1,280	3,611	48.4	2.8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18.2.7)	55	72	630	11.4	8.7
KODEX MSCI KOREA ESG 유니버설('18.2.7)	188	308	332	1.8	1.1
KODEX 200ESG('19.11.14)	85	81	213	2.5	2.6
FOCUS ESG 리더스('17.12.13)	169	192	253	1.5	1.3
TIGER MSCI KOREA ESG 유니버설('18.2.7)	67	68	73	1.1	1.1
ARIRANG ESG 우수기업('17.8.31)	58	56	50	0.9	0.9
ARIRANG 탄소효율그린뉴딜('21.2.5)	-	-	76	-	-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21.2.5)	-	-	122	-	-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21.2.5)	-	-	510	-	-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21.2.5)	-	-	970	-	-
합계	697	2,058	6,840	9.8	3.3
전체 ETF 시장	517,123	520,365	619,520	1.2	1.2
전체 ETF 대비 ESG ETF 비중(%)	0.1	0.4	1.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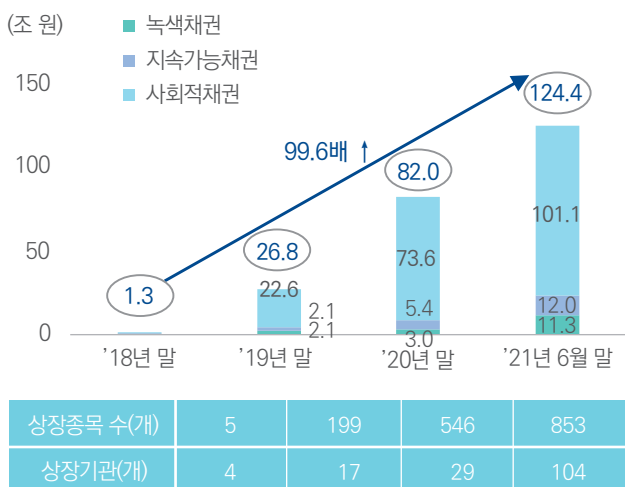
Source: 한국거래소

“ 국내 ESG 시장은 연기금 중심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ESG 펀드와 ETF, SRI채권 등 민간 부문의 관심 급증 ”

공모펀드와 ETF 등을 통한 일반 투자자의 ESG 투자 규모는 2021년 3월 기준 약 2조 원 내외로 추산되어 연기금 대비 투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ESG 공모펀드 규모는 2021년 3월 약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2019년 말(1조 994억 원)과 2020년 말(1조 1,086억 원) 대비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대로 2021년 1분기에만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다.<sup>12)</sup> 또한 ESG ETF의 경우, 2021년 5월 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SG ETF는 총 11개이며, 순자산 총액은 6,840억 원으로 전년 말(2,058억 원) 대비 3.3배 증가하여 동 기간 전체 ETF 시장의 순자산 규모의 증가 폭(1.2배)을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전체 ETF에서 ESG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대비 높아진 1.1%를 차지한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KRX ESG 리더스150' 지수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20년 11월에는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를 신규 발표하여, 2020년 5월 말 7개의 ESG 벤치마크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더불어 2021년 2월 상장된 4개의 신규 ETF의 경우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를 기초지수로 상장된 상품으로 투자자 관심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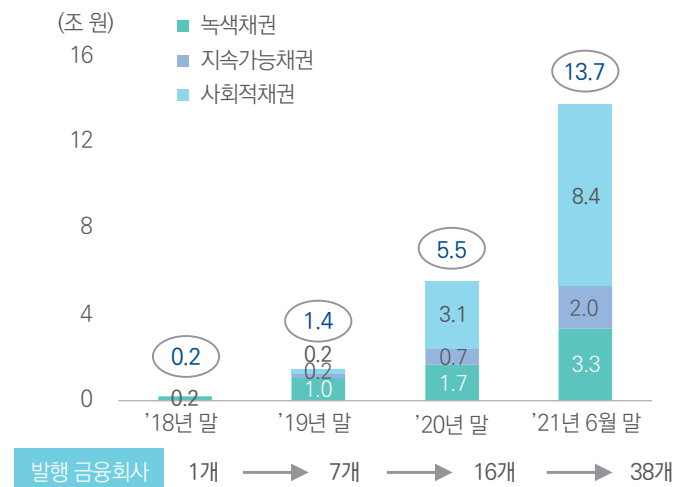
국내 사회적책임투자(SRI)채권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자금 조달 필요성과 시장의 관심,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2020년 6월 개설한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 개설 등을 통해 공신력과 투명성이 높은 정보가 제공되면서 상장 건수와 잔액이 큰 증가세를 보인다. 2021년 6월 말 기준 SRI채권 상장 종목 수는 853개로 2018년 말 대비 170배 증가했고, 상장잔액은 동기간 99.6배 성장한 124.4조 원을 기록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상장채권 잔액 중 사회적채권 비중은 81%(101.1조 원)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이 서민 주거안정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특수채 증가에 기인한다. 이 가운데 국내 민간 금융회사의 SRI채권 상장도 증가세이다. 2021년 6월 말 기준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한 SRI채권 상장 잔액은 13.7조 원으로 전체 SRI채권 상장 잔액의 11.0%를 점유한다. 초기 은행 등에 국한되어 ESG채권 발행에 참여하던 민간 금융회사는 최근 카드, 캐피탈사 등 참여 범위가 확대되며 2021년 6월 말 기준 38개 사가 SRI채권을 발행했다.

» 국내 SRI채권 상장 현황



Source: 한국거래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Note1: 상장기관은 특정 기관이 여러 종류의 SRI채권 발행 시 중복 배제  
 Note2: 2021년 6월 말은 동년 6월 25일 기준

» 민간 금융회사의 SRI채권 상장 현황



Source: 한국거래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12) 중앙일보(2021.3.24), "ESG가 뭐길래, 관련펀드에 5000억 넘게 몰렸다".



## 국내 금융업 내 빠르게 변화하는 ESG 트렌드



지배구조 및 ESG 공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 속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 ”

### 국내 금융산업 중심으로 ESG 내재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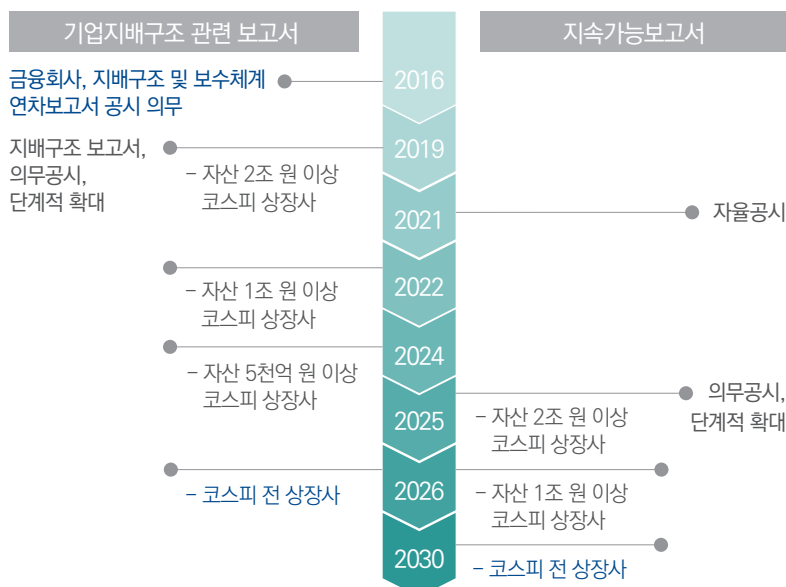
#### (1) 기업에 대한 ESG 공시 규제 강화 속 금융회사 선제적 ESG 공시 규제 필요성 증가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ESG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ESG 요소 중 G(지배구조)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는 기조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된 기업 지배구조보고서는 2019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로 전환되며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자율공시로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보고서의 공시 강화도 추진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에 '지속가능보고서'의 공시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가능보고서의 자율공시 확대를 추진하며, 2025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5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이사회 권한과 심의기능 강화,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 제고 외 지배구조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사는 지배구조 일반, 이사회, 임원후보추천·감사위원회·리스크 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20년 사업연도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의무제출 대상 215개 사 중 금융사는 40개 사가 포함되어, 현재 수준의 자산 규모만을 고려 시 최소 40여 개 금융사가 2025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고려 시 ESG 공시 규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일반 회사보다 높은 규제 준수와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 » 국내 ESG 정보 공시 규제 방향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 자산규모별 지배구조보고서 제출회사 현황 ('20.12월 말 결산법인)

(단위: 개)

자산규모	전체기업수	금융사	비금융사
100조 원 이상	14	9	5
50조 원 이상	12	8	4
10조 원 이상	58	16	42
5조 원 이상	38	5	33
2조 원 이상	93	2	91
합계	215	40	175

Source: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1.6.1), 2021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기한 내 공시 완료.

Note: 유가증권 시장 법인인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 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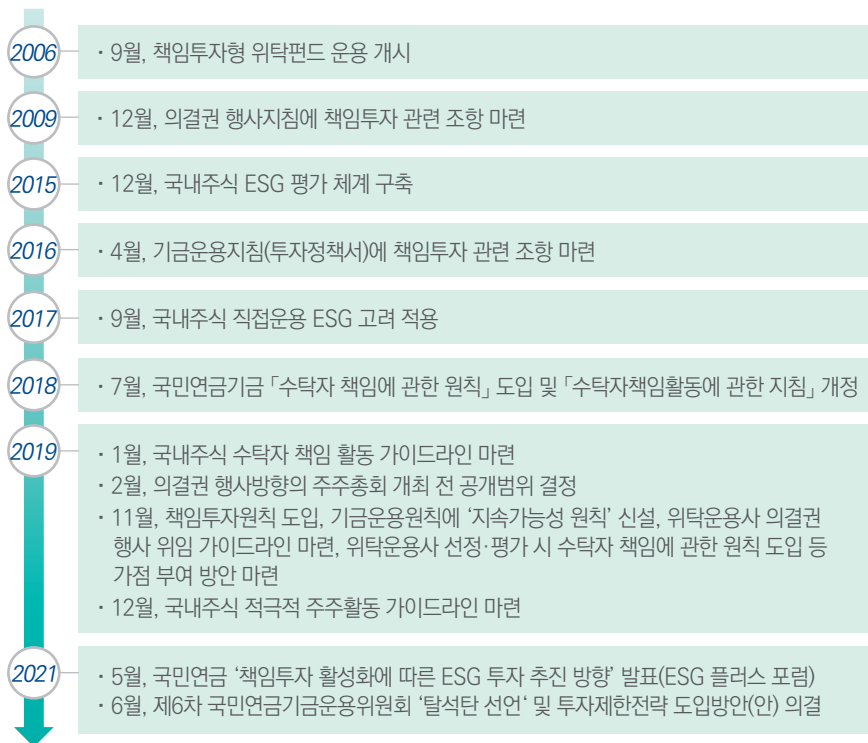
“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기초로 위탁운용사·  
거래 증권사 선정 등에  
개별 금융사의 ESG  
역량 고려 계획 ”

## (2) 연기금의 책임 투자 강화 기초와 금융회사의 ESG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국민연금기금은 2021년 3월 말 기준 873조 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3대 연기금으로 2015년 국내 주식에 대한 ESG 평가체계 마련과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해 ESG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내용의 ‘책임투자원칙’을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5월에는 탈석탄 등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도입 방안을 의결하여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본격 논의하였으며, 2021년까지 국내외 주식과 채권, 해외주식을 ‘ESG 통합’ 운용하고, 2022년부터 전체 기금 규모의 50% 이상을 ESG 통합 전략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13)</sup> 이에 2020년 약 100조 원 수준의 국민연금 책임투자 규모는 2024년 약 5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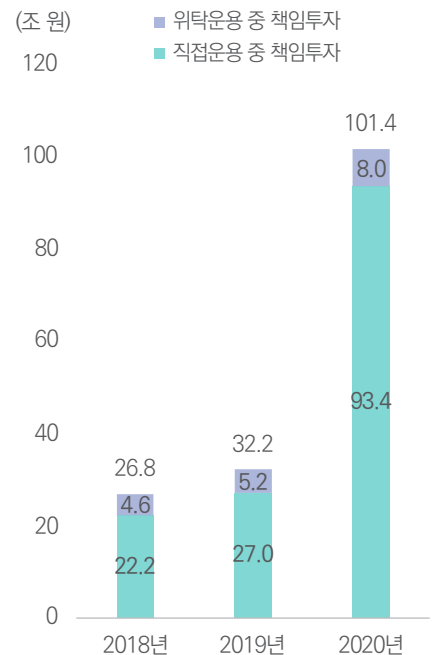
또한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성 활용과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다변화와 위험분산을 위해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 운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2020년 11월부터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022년부터 이를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며,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시 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거래 증권사 선정에 있어서도 증권사 기업분석보고서 작성 시 ‘비재무적 요인’도 함께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거래 증권사) 선정을 희망하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자본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운용 규모, 책임투자 강화 기초 등을 고려 시, 자체적으로 기업 ESG에 대한 리서치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투자 전문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 동향



Source: 국민연금공단, 삼정KPMG 경제연구원

### »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책임투자 규모



Source: 국민연금공단

13) 국민연금(2021.5.21), “ESG 플러스 포럼” 발표내용 참고



K택소노미와 녹색금융  
모범규준 등을 통해  
지속가능활동과  
녹색금융의 표준이  
마련될 전망 ...  
이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 필요성 점증 ”

### (3) ESG 투자를 촉진을 위한 K택소노미, 녹색금융 모범규준 등 정립 중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과 그린 위상을 방지하면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녹색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2020년 10월 녹색경제 인프라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 K택소노미(K-Taxonomy)를 추진 중이다. 2021년 4월 환경부는 K택소노미 초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렴 후 이를 개정했다. 개정된 K택소노미는 8대 분야에서 51개 활동을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며, 초안 대비 규정 요건을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더 많은 경제활동이 녹색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친환경 자동차·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녹색 소부장’도 새롭게 녹색활동으로 인정되었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 내 K택소노미를 확정·발표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K택소노미의 국내 수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금융권 녹색분야 자금지원 원칙을 담은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2021년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모범 규준은 ① 녹색 기업의 구분을 위한 금융권 분류 기준, ② 녹색금융 지원 기본원칙 및 거래방식, ③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 리스크 관리 및 공시 규율, ④ 금융회사 내 녹색금융 추진 조직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⑤ 녹색금융 업무를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은 채권시장에서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 확보 및 녹색채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발표한 녹색채권원칙(GBP)을 바탕으로 해외 녹색채권 기준 및 국내 현황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K택소노미 및 녹색금융 모범규준 등이 마련될 경우, 현재 민간 금융회사가 불분명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속가능활동 및 녹색금융에 대한 표준이 제공되어 녹색대출, 녹색기업 우대금리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 쏠림이나 버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필요해질 전망이다.

#### 》 K택소노미 초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타
주요 대상	· 10대 분야 87개 경제활동(초안) →8대 분야(① 에너지, ② 제조, ③ 도시건물, ④ 운송, ⑤ 자원 순환, ⑥ 배출 이산화탄소 포집, ⑦ 생물다양성 보전 및 농업, ⑧ 기후변화 적응) 51개 경제 활동(수정안)	EU, ISO, 중국 등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 선정
기술적 기준	·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기술적 기준(Threshold) 단계적 마련	-
환경 법규	· 그린 위상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 분야별 준수해야 할 환경법규 구체화	EU:DNSH(Do No Significant Harm) 원칙으로 준수대상 환경 법규 제시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8.13),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참고, 삼성KPMG 경제연구원

#### 》 녹색금융 모범규준(초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분류기준	· 녹색 및 비녹색의 금융권 통일을 위해 ‘금융권 분류기준’ 마련
투자 전략	· 녹색금융 지원 관련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 제시
리스크 관리 및 공시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점검방식, 공시 확대 기본방향 등 규율
추진체계	·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금융 추진조직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확립을 위해 최선책 제시
면책	· 적극적 녹색금융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조항 마련 등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8.13),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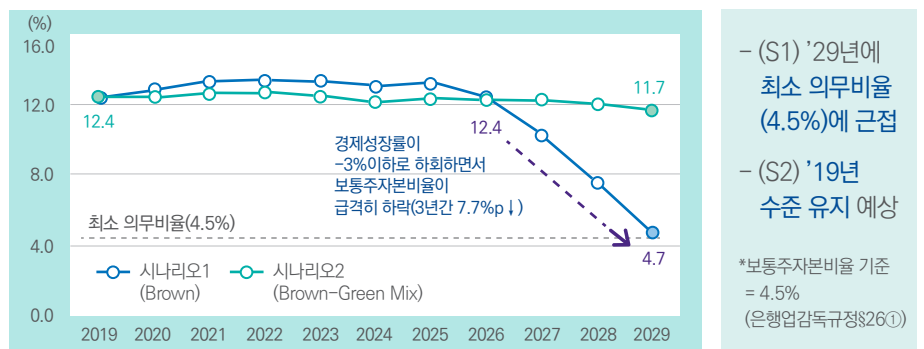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기후 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추정  
 모형 등을 개발하며  
 건전성 감독 체계에 기후  
 리스크 반영 본격 논의  
 ”

#### (4)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에 기후 리스크 반영 추진

기후 리스크와 관련되어 녹색금융협의체(NGFS)는 중앙은행·감독기구가 기후변화 리스크가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건전성 감독 과정에 통합할 것을 지속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기후 리스크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결과 일부를 발표했다.

동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배출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탄소배출 감축 비용에 대해 ① 신기술 개발 등의 노력 없이 감축 비용 상승으로 총당하는 시나리오(S1)와 ②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을 하는 시나리오(S2)로 나누어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테스트 결과, 2026년까지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시나리오 1의 경우 2026년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이 급락하여 2029년에서 4.7%로 낮아져 최소 의무비율(4.5%)에 근접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시나리오 2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자본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추정됐다.

#### » 금융감독원, 기후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은행 보통주자본비율 추이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25),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별첨 2, p.8. 참고

이러한 추정 결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이지만, ESG 논의가 우리와 동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충분히 발생 가능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사전적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철강, 전력발전, 금속, 화학 등의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취약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의 전환 리스크 발생 시 대출은행 등의 건전성 악화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기술 개발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국내 금융권의 인식 확대와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 공동으로 기후 리스크 포럼을 설립하고, 향후 업권별로 기후 리스크 대응 실태, 해외에서의 기후 리스크 관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기후 리스크 관리·감독계획’을 준비 중으로 동 포럼에서 금융회사와 이를 사전적으로 논의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므로 금융회사 역시 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국내 금융회사의 ESG 경영 활동 행보와 평가



국내 금융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ESG 위원회 설립과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노력 중, 그러나 환경(E)과 지배구조(G) 부문의 개선도 일부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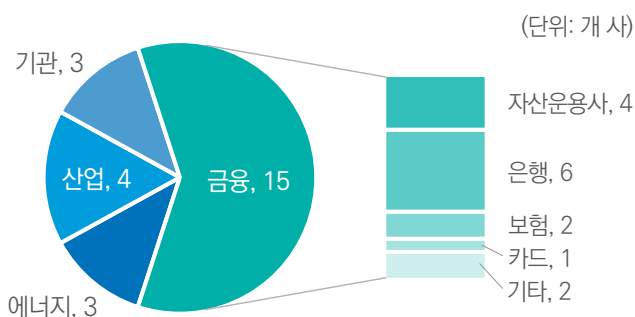
### 글로벌 ESG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2015년 이후에 TCFD를 지지하고 기후공시 관련 재무공시를 따르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ESG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금융회사들이 빠르게 ESG 경영을 전략화하는 추세 속 최근 국내 금융기업들도 ESG 경영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준을 따르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선 글로벌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인 TCFD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6개 사에 불과했으나, 2021년 3월 기준 25개 사로 증가했다. 이 중 금융산업 내 가입 기관은 총 15개 사로 은행 6개, 카드 1개, 보험 2개, 자산운용사 4개 등 각 업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가입하고, 녹색 및 지속가능채권 발행과 대출 심사에 '환경'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금융회사도 증가세이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확대되어 연기금 및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2021년 1월 총 146개 기관 및 기업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중이다. 국내에서도 대형 금융지주사들 중심으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과 주주총회 관련 기업관여나 기업관행 개선,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으로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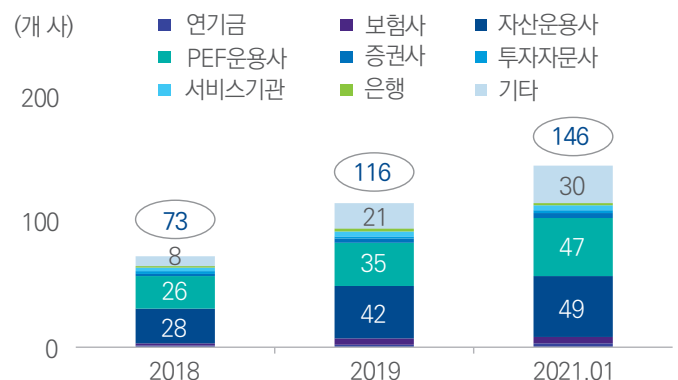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금융산업의 ESG 경영 평가를 보면, 업권별·ESG 영역별 실질적 ESG 내재화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2020년 ESG 평가 결과는 2019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자산 규모가 높은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은 전반적으로 ESG 통합 등급이 높은 수준이나 카드사나 금융투자업의 경우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사회(S) 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환경(E)과 지배구조(G)에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환경 부문은 환경경영에 대한 리더십과 실천 의지를 표명한 조직이념을 설정하고, 기업의 경영 전략과 이에 통합된 환경경영의 전략 수립이나 세부 추진 계획 등이 고려된다. 이는 금융회사의 경우 상품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상 환경 리스크의 통합적 고려로 귀결되므로 국내 일부 금융사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을 통해 (사외)이사회의 역할, 위험관리 및 감사기구, 내부통제 등에 대해 상당히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역할과 활동, 여성비율 등 다양성 확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안전성을 유지하며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 국내 TCFD 가입 현황



Source: TCFD 홈페이지  
Note : 2021년 3월 현황

### »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현황



Sour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국내 금융회사, ESG 경영의 국제경쟁력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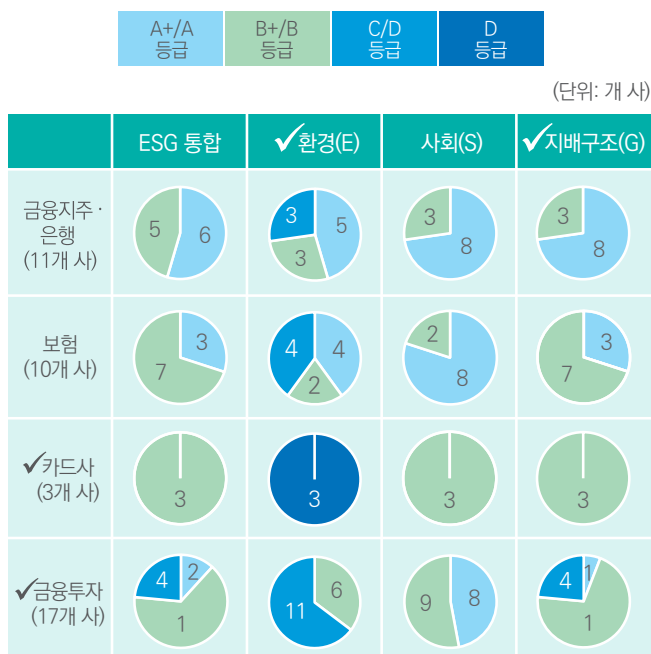
한편,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비교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ESG 경영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MSCI에서 평가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는 2021년 5월 기준 약 32개 사로 이 중 AAA 등급인 국내 금융회사는 전무하며, AA 등급인 금융회사는 3개 사(9%)이다. MSCI 등급상 ESG Leader로 분류되는 AAA와 AA 등급에 해당하는 글로벌 금융회사 비중이 각각 3%, 20% 내외라는 점을 고려 시 국내 금융사는 글로벌 금융사의 ESG 경영 현황에 비해 미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및 일본 대비 국내 주요 은행은 ESG 리스크 관리 정책과 절차, 임직원의 인식,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의 ESG 통합 개선 필요”

또한 글로벌 비영리 기관인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이 2020년 아시아 48개 은행을 대상으로 평가한 지속가능금융평가(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 SUSBA)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은행은 아세안 지역 내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 또는 아시아 최초로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금융사의 ESG 경영이 확산된 일본 주요 은행 대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은행들과 아세안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 통합점수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ESG 관련 거의 전 부문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은행의 경우 ESG 및 지속가능성의 목적, 임직원의 ESG 이슈에 대한 인식, 금융상품 내 ESG 통합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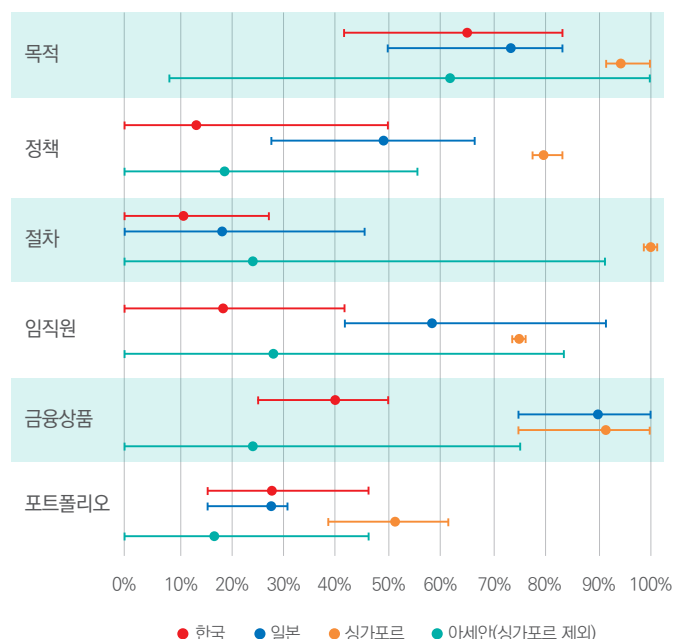
세계자연기금은 우리나라 은행이 글로벌 금융이니셔티브인 UNEP-FI에 서명하며 녹색 금융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금융활동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마련과 공시 강화, 임직원의 인식 제고, 금융상품 및 포트폴리오 내 ESG 요소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은행들이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에 탈탄소화를 위한 과학기반목표(Science Based Targets, SBT)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 국내 금융기업들의 ESG 평가 결과: 41개 대상



Source: 언론보도 종합,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10) 보도자료 참고

#### » 지속가능금융평가(SUSBA) 기준 성취도 평균(%)



Source: www.wwfkorea.or.kr(세계자연기금)



## 국내 금융회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 방향

“

정부, 지속가능금융의  
조력자로서 인프라  
정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균형적  
시장 메커니즘 조성 필요

”

### 정부, 지속가능금융의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위해 ESG 정보 플랫폼 등 인프라 정비 등 시장조성자 역할 필요

EU 등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탈탄소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서두르고 ESG 관련 법규를 정비 하면서 금융회사 등 다양한 기업의 ESG 경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적 재원에 의존하여 SDGs를 지향하던 금융활동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며 녹색투자 또는 ESG 투자를 통해 친환경·저탄소 산업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며 국제 금융질서 내 새로운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ESG 공시의 단계적 확대 및 K택소노미, 녹색채권 기준 등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마련 중이다. 이러한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ESG 강화 방안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와 협력·소통하고, 금융회사 등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이자 조력자로 역할 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K택소노미의 경우, 기준이 엄격하면 산업·금융계에 부담 요인이 되어 녹색금융이 위축될 수 있으며, 기준이 너무 낮으면 그린 워싱으로 인해 산업 구조의 친환경 전환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K택소노미와 같은 주요 기준 정립 시 국제적 정합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가능성, 녹색금융 활성화와 산업·금융계의 부담 정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 금융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나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역시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및 기업과 금융회사가 실무상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등도 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이나 사업 관련 ESG 정보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등 ESG 생태계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상장기업 대상 ESG 정보 공시 의무화 이전이라도 자발적으로 기업 등이 객관적이며 신뢰성을 가진 ESG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SG 범주와 정보 공시 및 기준 등에 대해 TCFD 권고안이나 SASB 등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되,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안과 ESG 평가기관들이 평가대상기업으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금융회사,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전사 전략 방향 설정

#### (1)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된 장기적 ESG 비전과 목표 설정

2021년 3월 국내 113개 금융회사들의 ‘2050 탄소중립’ 지지와 동참 선언에 이어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은 탈탄소화 등 ESG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전사 차원의 ESG 전담 위원회나 조직 등을 신설하며 빠르게 대응 체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ESG 경영이 금융회사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경영진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핵심 역량과 연계된 ESG 경영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기업의 장기지속성을 도모해야 한다. 즉, ESG를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및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블랙록은 ‘더 많은 사람들의 재정 안정성을 돕는다’는 철학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에  
기초하여 금융회사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중장기 관점의 ESG  
비전과 목표 설정 ”

아래 장기적으로 높은 위험조정수익률을 달성하는 투자 방식으로 ESG 투자를 선택했다. 일본의 다이이치 생명도 일본의 인구구조적 변화 속 보험사의 역할 자체를 고민하여 ‘당신 곁에서, 평생 동안’이라는 비전하에 보험과 투자 방향 자체를 변화시켰으며, BBVA는 기후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 강자’라는 강점을 활용해 중장기적 수익 기반인 중남미 지역에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는 ESG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는 한편, ESG 이슈는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진화하는 주제인 만큼, 국내 금융회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ESG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금융회사의 ESG 전략을 발전·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들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본력이나 인적 자원을 확보한 대형 금융회사와 달리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나 ESG 경영은 단순히 컴플라이언스 업무나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닌 해당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존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관점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 (2) ESG 위원회 설립 등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 제고

복잡해지고 상호연결성이 높아지는 금융시스템하에서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는 지배구조 관련 규제 및 공시 의무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지배구조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이나 최대 주주의 지배구조 문제 등이 불거지는 상황으로 ESG를 고려한 이사회 구성과 전문성·독립성 확보,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운영의 내실화 등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질적 성숙과 ESG를 고려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이사회는 경영목표 및 평가에 대한 사항, 정관의 변경, 예산 및 결산,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의 제·개정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ESG 이슈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전사의 ESG 경영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회사는 ESG 위원회 신설과 기능 강화 등을 통해 ESG 가치가 전사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룹 차원의 ESG 위원회를 설립하여 ESG 전략 실행을 위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ESG 요소가 회사의 감사, 리스크 관리, 보수 체계 등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다른 주요 위원회 간 협력 관계를 이루며 운영의 실효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가 설립한 ESG 위원회는 ① ESG 관련 일반적 전략 수립, ② 해당 전략에 기초한 이니셔티브 및 정책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 ③ ESG 관련된 직원,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감독, ④ ESG 이슈에 대한 리서치 기능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 ⑤ ESG 공시와 보고 등을 주로 담당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ESG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알리안츠의 경우 2021년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를 선임한 데 이어 글로벌 지속가능성 그룹 센터 신설,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룹 전체가 ESG를 주요 어젠다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영진의 보수정책에 지속가능성 목표를 포함하여 임원의 보수와 전사의 ESG 성과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ESG 이슈에 대한  
이사회 역할과  
책임 명확화, ESG  
위원회 신설 및  
각 위원회와의  
유기적 조화와  
협력 필요 ”

“

ESG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등  
과학적이며 일관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축과 금융회사  
밸류체인 내 내재화

”

### (3) ESG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 등 과학적·통합적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축

ESG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ESG 가치를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투자 정책, 컴플라이언스, 내부 감사 등 밸류체인 전반에 ESG 요소가 유기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ESG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측정·분석·평가할 수 있는 일관적이며 과학적 프로세스와 툴의 개발, 전문성 확보이다.

영업이익, 부채비율과 같은 회계 정보와 달리 ESG 요소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명확히 알기 어려운 만큼, ESG와 연관된 활동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활동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ESG 익스포저가 발생하고 이는 은행의 신용·시장·유동성 리스크 등 다양한 역할 관계를 통해 은행 전 분야에 재무적·비재무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전사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ESG 익스포저와 전체 포트폴리오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회사의 핵심 요소인 리스크 관리 상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과 프로세스 내 ESG 요소를 고려하여 ① ESG 리스크 식별, ② ESG 리스크 측정과 평가, ③ 사업운영, ④ 모니터링, ⑤ 내부보고, ⑥ 공시 및 외부보고 절차 등의 프로세스를 일관적으로 마련하고 ESG 리스크를 세분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블랙록은 Aladdin Climate 등을 탑재한 알라딘(Aladdin)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슈로더 역시 ESG 임팩트 측정·평가와 투자를 연계한 투자 툴 impactIQ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과학적이며 일관된 ESG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사의 경영철학이 내재될 수 있는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금융회사 ESG 리스크 통합관리 프로세스



Source: KPMG Global(2021.05), ESG risks in Banks: Effective strategies to Use opportunities and mitigate risks.

또한 국내 금융회사는 ESG 리서치 또는 투자 등에 있어 팀이나 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알리안츠는 그룹 전체의 ESG 어젠다를 지원할 글로벌 지속 가능성 그룹 센터를 신설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하는 블랙록은 투자 스튜어드십(BIS) 팀이 이에 대한 전담업무를 수행하며, 다이이치 생명보험은 ESG 애널리스트의 자산별 ESG 리서치 역량을 강화하여 투자팀과 이를 공유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별로 각 사의 업무 특성에



ESG 리서치 및  
투자 전담팀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ESG  
연계된 금융상품  
고도화와 다변화 추진



따라 ESG를 실무적으로 전담·책임지는 부서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ESG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연구해야 할 주제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 (4) ESG를 고려한 신금융상품 개발과 고도화

우리나라의 ESG 금융상품은 글로벌 대비 규모나 상품 수 등은 상대적으로 해외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나, 국내에 도입된 ESG의 시기가 늦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게 이를 내재화하고 있다. 현재 일부 ESG 펀드는 일반 펀드와 유사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며 그런 워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K택소노미, 녹색금융 모범규준, ESG 연계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향후 ESG 금융상품의 고도화와 다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회사는 지속가능금융의 조성자이자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청정·재생 에너지, 수자원 및 에너지 효율,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부문에서 프로젝트 및 투자 상품 등을 개발하는 한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구매,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연계된 소매금융상품이나 지속가능연계대출 등 ESG 요소를 반영하는 민간 금융상품 등도 자사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하여 고도화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기관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참여 및 의견권 행사 방식의 고도화 등 투자방식 또한 재검토해야 한다.

#### (5) 금융회사의 ESG 정보 및 금융상품 공시 강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공시 강화 기조로 금융그룹은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에 대한 '금융그룹 통합 공시'를 비롯하여 '지배구조와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 의무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배구조 외 환경, 사회와 관련된 공시 부문은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회사 규모와 업종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물론 SASB 등의 중요성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의 온실가스 절감 규모 등 일부 환경적 요소는 금융회사의 경제적 수익과 직접적 연계성이 낮은 항목이다. 그러나 연계성이 낮아 온실가스 감축 필요 수준이 낮다는 것과 해당 항목 자체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기조 속에서도 특히, 금융업은 가장 빠르게 ESG 공시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22년부터 역내 금융회사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공시(SFDR)'가 시행되고, 글로벌 대형 은행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선언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은행의 탄소배출량뿐만 아니라 거래 고객의 탄소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의 공시도 요구된다.

ESG 정보 공개는 컴플라이언스 또는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자사의 ESG 경영 전략의 현황 파악과 평가, 향후 방향성 설정의 초석이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TCFD와 같은 글로벌 공시 표준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금융회사의 ESG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융회사는 규제 준수 차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SG 금융상품의 성과 내역, 상품 설명서나 포트폴리오의 관련 세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 투자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의  
ESG 정보 공시 강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

”

## (6)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 강화와 인식 제고

금융회사는 단순한 기부·자선활동이나 도덕적 차원을 넘어 금융회사 본연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자로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임팩트 투자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금융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증진, 직장 내 근로자 인력개발 및 지원, 협력사와의 공정경쟁 부패방지, 소비자 안전 및 보건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금융상품 보급, 개인 정보보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교육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하며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금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의 빈곤도와 금융소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의 고도화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도 거론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의 해외 진출과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ESG 활동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금조달, 상품 개발, 해외 진출 등의 비즈니스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금융회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일회적 차원이 아닌 수익성 제고,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 고객 기반 확보 등 금융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금융기업들의 ESG 경영 전략 방향

- 1



**금융회사의 장기적 ESG 비전 및 목표 설정**

  - 경영진의 인식 전환과 의지에 기초한 ESG 경영의 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
  - 금융회사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ESG 경영 목표 수립
- 2



**ESG 위원회 설립 등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 제고**

  - ESG를 고려한 이사회 구성, 전문성, 독립성 확보 및 운영의 내실화 등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
  - ESG 이슈에 대한 이사회 권한과 책임 명확화
  - ESG 위원회 설치 고려 및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 등과 협력 강화와 실효성 제고
- 3



**ESG 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축**

  - ESG를 고려한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투자정책,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등 전사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축
  - 과학적이며 일관된 ESG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내외부 인프라 활용
  - ESG 리서치 및 투자 등 전담팀 구성과 전문성 강화
- 4



**ESG 관련 신상품 개발과 고도화**

  - 기존 금융상품 대비 차별성 확보한 ESG 연계 금융상품 개발과 고도화
- 5



**ESG 정보 적극적 공시**

  - 지배구조 외 환경, 사회와 관련된 ESG 정보 적극 공시
  - TCFD, SASB 등 글로벌 공시 표준에 기반한 ESG 정보 공시 강화
  - ESG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
- 6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 강화 및 인식 전환**

  - 금융포용성· 금융접근성 증진, 금융소비자 보호, 인적자원 개발 및 지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금융회사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전환



# HOW KPMG CAN HELP

삼정KPMG는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ESG 기반 리스크 관리를 위한 ESG 신용평가모형, 리스크 측정, 여신정책 및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정KPMG ESG 기반 리스크 관리 자문서비스는, 기존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여신 프로세스와 Value Chain을 고려한 체계화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삼정KPMG는 리스크 관리 컨설팅 분야 최고 수준의 컨설팅 수행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교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을 약속합니다.

## KPMG 자문영역: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ESG 기반 리스크 관리

- 신용평가모형**



**ESG 신용평가모형 개발**

  - ESG 신용평가항목 및 참조지표 개발
  - ESG 신용평가 Scorecard 설계(신용평가항목의 등급구간 가이드라인, 가중치 등 설계)
  - ESG 신용평가모형 활용구조 정의(기존 기업신용평가모형과의 결합방법, 활용방안 정의)

---

- 리스크 측정**



**ESG 포트폴리오 영향력 분석 및 리스크 측정 체계 구축**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반 리스크 측정 시스템
  - ESG 시나리오 요인이 반영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 개발 및 리스크 관리 전략
  - 감독기관 ESG 리스크 관리 권고사항 충족을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

- 여신정책**



**ESG 리스크 관리 전략과 연계한 여신정책 자문**

  - ESG 평가결과 기반 여신승인, 한도, 금리 등의 여신심사 정책 활용 전략
  - ESG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방법 자문
  - ESG 시나리오 요인이 반영된 담보 리스크 관리 전략

---

- 데이터 관리**



**ESG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전략**

  - ESG 신용평가를 위한 대출기업의 ESG 관련 데이터 수집 필요항목 및 관리 프로세스 정의
  -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 기관의 데이터 활용 방안
  - Big Data를 활용한 ESG 데이터 분석 및 추정치 산출





# Business Contacts

## 금융산업 ESG 전문팀

### Audit

조원덕  
금융산업리더, 부대표  
T. (02)2112-0215  
E. wcho@kr.kpmg.com

최재범  
부대표  
T. (02)2112-0213  
E. jaebeomchoi@kr.kpmg.com

권영민  
부대표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채민선  
전무  
T. (02)2112-0484  
E. mchae@kr.kpmg.com

김진귀  
전무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박철성  
전무  
T. (02)2112-0437  
E. chulsungpark@kr.kpmg.com

조정래  
상무  
T. (02)2112-7525  
E. jjoh@kr.kpmg.com

황정환  
상무  
T. (02)2112-0462  
E. jeonghwanhwang@kr.kpmg.com

## ESG 서비스 전문팀

### ESG Strategy

이동석  
부대표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윤권현  
전무  
T. (02)2112-7495  
E. kyoona@kr.kpmg.com

김정남  
상무  
T. (02)2112-7641  
E. jungnamkim@kr.kpmg.com

문상원  
상무  
T. (02)2112-6513  
E. sangwonmoon@kr.kpmg.com

### Advisory

장지수  
부대표  
T. (02)2112-7577  
E. jjang@kr.kpmg.com

박용수  
부대표  
T. (02)2112-0421  
E. yongsoopark@kr.kpmg.com

여준형  
상무  
T. (02)2112-0207  
E. junhyungyeo@kr.kpmg.com

### Deal Advisory

김진원  
전무  
T. (02)2112-0795  
E. jinwonkim@kr.kpmg.com

이동근  
전무  
T. (02)2112-7764  
E. dlee@kr.kpmg.com

이진연  
상무  
T. (02)2112-7435  
E. jinyeunlee@kr.kpmg.com

이준상  
상무  
T. (02)2112-7566  
E. joonsanglee@kr.kpmg.com

[kpmg.com/kr](http://kpmg.com/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